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영어과 성취기준 및 과업 유형에
따른 듣기 과업 분석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김혜영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영어과 성취기준 및 과업 유형에
따른 듣기 과업 분석

지도교수 조 윤 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 전공

김혜영

김혜영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30일



주심 영어학 박사 배재덕 (인)

위원 영어학 박사 Stonham (인)

위원 교육학 박사 조윤경 (인)

목차

영문초록 viii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연구 과제 2
1.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2.1. 듣기
 2.1.1. 듣기의 정의 4
 2.1.2. 듣기의 필요성과 이해 과정 5

2.2. 듣기 과업
 2.2.1. 과업의 정의 7
 2.2.2. 듣기 과업의 중요성 및 특성 9
 2.2.3. 듣기 과업 분류 12

2.3. 중학교 영어과 7차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2.3.1. 중학교 영어과 7차 교육과정의 특성 14
 2.3.2. 중학교 영어과 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 15

2.4. 선행 연구 분석 17

III.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22

3.2. 분석 기준 26

IV. 분석 결과 및 논의

4.1. 성취기준에 따른 듣기 과업 분석

4.1.1. A 교과서 듣기과업 분석 28
4.1.2. B 교과서 듣기과업 분석 31
4.1.3. C 교과서 듣기과업 분석 34

4.2 Ur(1984)의 과업 분류에 따른 듣기 과업 분석

4.2.1. A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38
4.2.2. B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43
4.2.3. C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47

4.3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4.3.1. 성취기준에 따른 듣기 과업분석 결과	51
4.3.2. Ur(1984)의 과업 분류에 따른 듣기 과업 분석 결과	54

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60
5.2 제언	62

참고문헌	64
------	----

부록	6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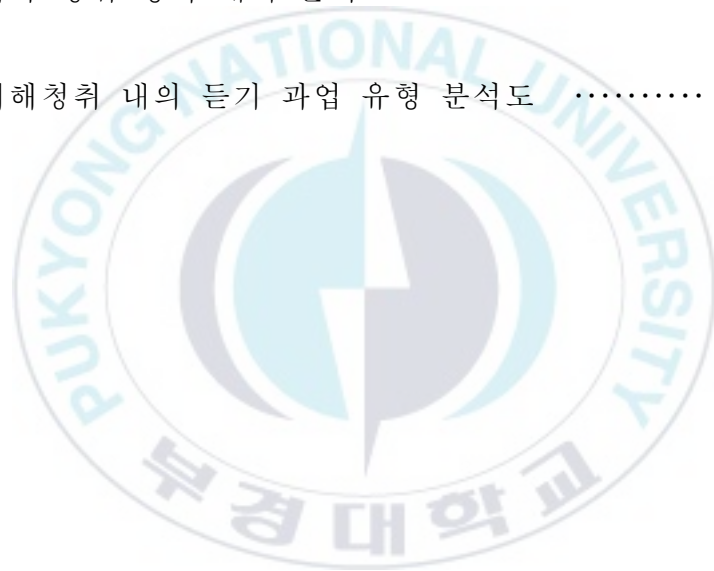


표 목차

(표1) Ur(1984)의 듣기 과업 유형	13
(표2) 중학교 영어과 7차 교육 과정 성취 기준	16
(표3) 교과서 분석 범위와 내용	22
(표4)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기준	26
(표5) 일상생활에 관한 말/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 구분 ..	27
(표6) A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표	28
(표7) B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표	31
(표8) C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표	34
(표9) A 교과서 듣기유형 분석표	38
(표10) B 교과서 듣기 유형 분석표	43
(표11) C 교과서 듣기 유형 분석표	47
(표12) 교과서별 성취기준 분석표	52
(표13) 듣기과업 유형 상위 범주 분류에 따른 분석표	54
(표14) 지각 청취 영역 내의 분석	56
(표15) 이해 청취 내의 듣기 과업 유형 분석표	58

그림 목차

(그림1) 교과서별 성취 기준 분석도	52
(그림2) 듣기과업 유형 상위 범주 분류에 따른 분석도 ...	55
(그림3) 지각 청취 영역 내의 분석도	56
(그림4) 이해청취 내의 듣기 과업 유형 분석도	58



부록 목차

(부록1) Ur(1984)의 기준에 따른 교과서의 과업 분류	68
(부록2) A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표	70
(부록3) B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표	73
(부록4) C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	76
(부록5) A 교과서 과업 유형 분석	79
(부록6) B 교과서 과업 유형 분석	81
(부록7) C 교과서 과업 유형 분석	83

**An Analysis of Listening Task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Based on Achievement Standards And Types of Listening tasks**

Kim, Hye-yo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well the goals of the seventh revised curriculum's listening tasks have been realized and how diverse and suitable the tasks are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for first, second and third graders.

For this purpose, three types of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for first, second and third graders were randomly selected out of a range of 13 textbooks, with a total of nine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analyzed. The textbooks were analyzed based on the following criteria: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and types of listening tasks as described by Ur (1984).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listening tasks in the textbooks don't reflect standards for achievement with the necessary proficiency level for each grade. The 7th achievement level, which is for first graders, has the highest proportion of listening tasks of all the textbooks, regardless of the learners' proficiency level. For example, and most especially, the listening task items in the 9th achievement level have a 0% rating - having no appropriately adapted listening tasks in the textbooks.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the listening task types of Ur (1984), between "listening for perception" and "listening for comprehension", "listening for comprehension" is more useful for actual communicative situations. This listening task type was present in greater proportions in all of the textbooks, regardless of the proficiency level.

Third, among the listening task types of Ur, "listening for perception" can be

sub-categorized as "at word-level practice" and "at sentence-level practice". Between these two, "at sentence-level practice" - which is at a higher level than "at word-level practice" was present in greater proportions in all textbooks, regardless of grade.

Fourth, there are four subcategories in the listening task type "listening for comprehension". Among these subcategories, "listening and making shorter responses" was present in greater proportions in all the textbooks regardless of the learner's proficiency levels. With this in mind, we noticed that listening tasks in the textbooks tended to be very biased. We noted very few uses of "listening for research and discussion", which requires high fluency levels and is the most important means of listening for learning. The listening tasks in the textbooks were biased towards two subcategories in "listening for comprehension": "ticking off the items" and "altering or marking maps, ground-plans, graphs, grids, family trees". Clearly listening tasks in these textbooks were not diverse enough to motivate learner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we provided the following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the listening sections of middle school textbooks. First, the level of listening tasks in the textbooks needs to be balanced. Above all, higher level listening tasks are necessary for more advanced learners.

Second, the types of listening tasks need to be more diverse in order to make learners feel more interested and motivated to study hard.

Third, the textbooks should offer more interactive listening tasks to motivate learners to actively participate. As the 7th revised curriculum puts emphasis on learning in small groups, some of Ur's task types, such as "listening for research and discussion", should be placed into textbooks with greater regularity.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7차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의 4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모두 잘 발달할 때 이루어지며, 언어의 4 기능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한 기능의 향상은 다른 기능을 촉진시키고, 기능간의 전이가 일어난다(Asher 외, 1974). 언어의 4 기능들 중, 듣기는 다른 기능으로의 전이가 용이하며, 의사소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듣기 기능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의 학습 효과는 학습자가 목표어에 노출되는 빈도와 지속성에 달려있다. 목표어를 모국어나 제 2외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학습자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EFL 교육 상황에서 학습자가 접하는 언어적 언어 입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학교 교실환경에서 제공받는 언어적 입력이 학습자의 언어 학습의 많은 부분을 구성한다. 교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교과서라는 기본적인 주요한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교과서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학습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영어 교육의 시작은 교사가 영어 교재를 통해 학습자에게 새로

운 언어적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부터이고, 영어 교재는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적 특성을 지닌다(Krashen, 1982). 이처럼 교과서는 영어 교육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김영숙, 1999; Littlejohn, 1998).

교과서 내용과 구성은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는 교육과정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좋은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는 교과서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방향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인 단계형 수준별 교육을 위해,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는지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듣기 능력 향상 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을 정리하고,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영어교육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개선점과 앞으로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1, 2, 3학년 영어과 교과서 13종 중 3종을 택하여, 총 9권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 2, 3학년 영어 교과서 3종의 교과서별 듣기 영역의 구성 체계를 살핀 후, 듣기 자료가 교과과정에 제시된 듣기 성취 기준 및 내용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 지를 조사한다.

둘째, 과업 중심의 듣기과업 유형에 따라 중학교 교과서 듣기 자료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과서 13 종 중, 3종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분석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교과서 내용을 제 7차 영어과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 분류하기 힘든 항목들은 연구자 임의의 기준에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분류했다.

셋째, 교과에서 제시되어 있는 듣기 유형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습자가 그 성취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하는 지에 대한 실험연구는 하지 않았다.

넷째, 실제 듣기 수업에서 사용되는 tape 나 CD-ROM과 같은 시청각 자료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며, 어떻게 활용되는 지에 관한 연구는 하지 않았다.

Ⅱ. 이론적 배경

2.1 듣기

2.1.1 듣기의 정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기는 크게 청취(Hearing)와 경청(Listening)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Widdowson(1978)은 청취(Hearing)를 의미와는 관계없이 언어의 음운이나 문법 구조를 인지하는 것으로, 경청(Listening)은 문장의 기능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언어 발달 단계 중 초기에는 청취(Hearing)의 연습을 하다가 실력이 향상되면서 경청(Listening)을 통해 능숙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반면, Berko와 Wolvin(1989)은 경청(Listening)에 청취(Hearing)가 속한다고 보고, 청취(Hearing)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수용하는 생물학적 과업이며, 경청(Listening)은 수용, 지각, 주의, 의미 부여와 메시지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듣기를 경청(Listening)과 청취(Hearing)로 구분하지 않고, 경청(Listening)으로 한정시켜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 중 Anderson와 Lynch(1988)는 듣기를 쌍방향의 기술로 이라고 정의한다. 듣기가 단지 '수동적'이나 '수용적'이라는 전통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며, 성공적인 청자의 역할은 능동적(Active)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듣기에서 청자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듣기 내

용에 적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려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Rivers(1981)도 듣기를 수용적 기능이 아니라 창조적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즉, 청자는 들은 것으로부터 중요한 의미(Significance)를 창조하며, 화자가 말한 언어 속에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의미는 청자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Underwood(1989)는 듣기를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의미를 파악하려는 과업으로 본다. 즉, 성공적인 듣기는 들리는 단어 그 자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말하는 언어와 상황을 통해 의미하는 바를 알아내는 것이다.

2.1.2 듣기의 필요성과 이해 과정

듣기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 Asher(1977)의 전신 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TPR)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그는 제 2언어 지도의 시작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목표 언어를 발화하도록 요구하지 말고 발화보다는 이해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학습들이 구두 반응을 보이기 이전에 충분히 듣게 함으로써 듣기를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Krashen(1985)은 모국어의 습득 과정과 원리에 착안하여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 즉 학습자의 현재 능력보다 약간 높은 단계의 언어를 충분히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Krashen과 Terrell(1983)은 자연적 접근법(Natural Approach)을 제안하여, “침묵기(Silent Period)”를 권장하여 말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학습자가 말하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듣기 과업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충분한 이해가능한 입력이 주어지면, 말하기 능력은 저절로 얻어진다는 것이다.

Rost(1994)도 듣기의 입력을 제공의 역할을 강조하여, 입력을 적정 수준

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학습이 시작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듣기를 강조하는 다른 중요한 이유들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들은 구두 언어 숙달도의 발달에 대한 듣기의 중요성을 입증해 준다. 첫째, 구두 언어는 학습자에게 상호 작용의 수단을 제공한다. 학습자들이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언어 화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게다가 들은 언어를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상호작용과 학습에 대한 자극이지 장애물은 아니다. 둘째, 원어민 화자가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학습자에게 진정한 구두 언어는 도전 거리를 제공한다. 셋째, 듣기 연습은 교사에게 그 언어의 새로운 형태(어휘, 문법, 새로운 상호작용 유형)에 대해 학습자의 주의를 끄는 수단을 제공한다.

Postovsky(1974) 역시 Asher(1977)처럼 학습 초기에는 말하기 과업을 지연시키고 듣기를 통해 목표어에 충분히 노출된 후에 말하기 읽기 쓰기의 등의 다른 언어과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듣기 우선 접근법(Listening first approach)을 주장하였다. 즉, 말하기와 같은 표현적인 언어는 발달은 듣기와 같은 수용적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수많은 심리 신경학적 연구 결과가 있기에, 표현적 언어와 수용적 언어가 동시에 발달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Anderson과 Lynch (1988)는 듣기 기술은 말하기 기술만큼 중요하며, 이 두 가지 기술이 같이 개발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고 말하여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Nord(1981)도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한 이유를 말하기에서는 학습자가 어휘나 구조적 지식을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듣기는 선택권이 없기에 듣기에 필요한 어휘와 구조적 지식이 말하기에 필요한 것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듣기 이론은 언어적 입력의 처리 방식에 따라 크게 “상향식” 이해 과정

이론과 “하향식”이해 과정 이론, 상향식과 하향식이 함께 작용하는 “상호 작용식”이해과정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향식 이해 이론은 듣기를 청취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에서부터 단어로, 단어에서 구로, 구에서 발화로, 발화에서 완전한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해독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며, 청취자의 어휘나 문법실력을 강조한다(Morley,1991; Peterson, 1991).

하향식 이해는 듣기의 과정에서 청자가 들은 소리를 단서로 화자가 의도한 원래 의미를 자신의 사전지식(Schema)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재구성한다고 본다(Richards, 1990).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적 이해 이론은 위에서 언급한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이 모두 적용되며,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청자는 청해 시 상향식 이해에 해당하는 과정인, 소리에서 단어, 문법적 관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동시에, 하향식 이해의 과정에 해당하는 사전 지식을 통해 전반적인 예상에 따라 청취 내용을 이해한다. 이처럼, 청취 시 청자는 하향식 이해와 상향식 이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Anderson & Lynch, 1988; Peterson, 1991).

이상과 같이 듣기는 상향식이나 하향식 이해 중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필수적이며, 이 두 가지 이해 과정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청취한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듣기 과업

2.2.1. 과업의 정의

과업을 어떻게 기술하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Skehan(1998a, pp. 95)은 과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의미가 일차적이다.
- 해결해야 할 의사소통 문제가 몇 가지 있다.
- 과업 완수가 약간 우선적이다.
- 과업의 평가는 결과물을 기준으로 한다.

과업이라는 용어는 과업 또는 연습(Exercise)과 유사한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훈련과 연습(Exerci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사소통 중심 교육의 관점에서는 과업을 학생간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의 용어로 사용한다(배두본,1999). 또한, Legutke와 Thomas(1991)도 이와 유사하게, 언어 학습 과업(Language Learning Tasks)이란 문법, 음운, 어휘, 의미 등의 영역에서 각각의 언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사의 지도하에서 실제 연습을 하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한다.

반면, Breen(1987)은 과업을 계획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여, 과업을 간단한 연습문제부터, 시뮬레이션 의사 결정과 같은 복잡한 과업에 이르기까지 언어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계획으로 정의한다. 과업의 범위를 실생활로 확대한 Long(1985)은 과업이 학습자들이 목표어로 행하는 실생활에서의 과업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서류를 작성, 비행기 예약, 도서관에서 책 대출, 페인트칠하기 등의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다 과업이라는 것이다. Willis(1996)는 과업을 학습자가 실제 결과를 얻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목표 중심의 활동이라고 본다.

Ur(1984)은 보다 세부적으로 듣기 영역에서의 과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교실용어로서의 과업은 목적과 기대의 두 개념이 실현되

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습자가 사전에 스스로가 행해야 할 반응의 종류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가 듣기의 목적을 안다는 것이고, 동시에 기대되는 정보의 유형과 그것에 대한 반응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듣기 영역 과업은 학생들이 자신이 들은 것을 이해했음을 표시하는 어떤 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그는 과업의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첫째로, 과업은 청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둘째로 긴 대화를 들을 때 이런 청자의 반응은 긴 대화를 이해하기 쉽게 자연스럽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업을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Ur(1984)과 Breen(1987)의 정의를 사용하여 과업을 ‘학습자의 언어 학습을 촉진하는 동시에 청취내용 이해정도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간단한 연습문제부터, 복잡한 의사 결정과 같은 과업에 이르기까지 언어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계획’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2.2.2. 듣기 과업의 중요성 및 특성

Richards와 Rogers(1986)는 과업 중심(Task-based)의 구성은 최근 의사소통 언어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재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Morley(1991)는 듣기 지도에 있어서 질문 중심이 아닌 과업 중심의 교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학습자에게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구하여 교재의 이해를 증명하는 것 보다는 청각 자료(Aural Material)로 구성된 정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과업 중심의 교수가 듣기 지도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Ur(1984) 역시 일반적으로 듣기 연습은 과업 중심의 형태를 가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히면서, 과업 중심 듣기 과업에서 과업이 가져야 할 요

건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과업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한다. 듣기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듣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에, 잘 구성된 수수께끼를 풀거나 게임과 같은 과업은 학습에 효과적이다. 과업의 소재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한 지겹거나 다소 이론적일 수 있는 주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드라마나 영화의 일부분, 유머 등은 흥미유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과업은 성공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학습자들은 한 가지 과업에 성공하면, 자발적으로 다른 과업도 하려 할 것이다. 이런 성공지향적 과업은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연습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듣기 연습은 평가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과업의 준비와 실행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간단해야 한다. 과업 전의 준비와 설치에 시간이 걸리는 연습은 비용 면에서 비효과적이다.

셋째, 학습자의 과업 수행 시 교사는 반드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 피드백을 주는 것은 비효과적이며, 과업 수행 후, 정답을 알려주어 학생 자신이 평가하게 한 후, 교사가 설명하면서 복습하게 하는 것이 좋다.

제 7차 교육과정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세부능력(Micro-skills)에서 거시 능력(Macro-skills)을 기를 수 있는 단계적인 과업이 필요한데, 특히 언어 학습 초기에는 발음, 단어 문장, 억양, 강세 등의 세부능력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업 중심의 교재는 과업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세부 능력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Richards & Rogers, 1986). 세부능력은 듣기의 목적에 따라 회화듣기, 학술듣기, 오락 듣기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목표는 회화듣기에 가장 근접하

다. Richards(1985)가 제시한 회화 듣기의 33가지 세부능력 중 듣기의 기본이 되는 능력 18 가지를 살펴보자.

- 1) 목표어의 변별적 소리 구분하기
- 2) 발화 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강세와 억양의 기능
- 3) 축약된 형태의 어휘 식별하기
- 4) 담화의 주요화제에 사용된 어휘 인식하기
- 5) 문맥 내에서 단어 의미 추측하기
- 6) 주요 요소, 비주요 요소 식별하기
- 7) 다른 문법적 형태로 표현된 동일한 의미 감지하기
- 8) 상황, 참여자, 목표, 절차 등을 재구성하거나 추론하기
- 9) 목적, 목표, 상황, 절차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지식과 경험 사용하기
- 10) 기술된 사건으로부터 결과 예측하기
- 11) 사건의 원인과 결과 연역하기
- 12) 휴지, 실수, 교정을 포함한 말 이해하기
- 13) 의미 있는 세부 내용 정확히 기억하기
- 14) 구두 지시대로 따르기
- 15) 듣고, 답하고, 간단한 질문 만들어 내기
- 16) 주제 파악하기, 요약하기(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에, 왜)
- 17) 구어로 제시된 내용 듣고 노트 필기하기(화자의 의도나 목적 파악, 개인적인 청취 동기 인식하기, 주요점, 부수요점 식별하기)
- 18) 즐기기 위해 혹은 감정적 반응을 얻기 위해 듣고 상상하기

그러므로 위의 내용과 같이 교사는 듣기 과업에서 과업이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의사소통의 세부적 능력을 길러 주는데 적합한 듣기 과업을 계획하여야 한다.

2.2.3. 듣기 과업 분류

여러 학자들이 듣기 과업에 대한 분류를 제시했으며, 최근의 듣기 과업에 관한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과업분류를 학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Brown(2001)은 교실에서의 듣기 과업 유형을 학습자의 학습 형태에 따라, 반복형, 집중형, 반응형, 선택형, 확장형, 상호작용형의 6가지로 나눈다.

최근의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또 다른 분류기준을 제시한 Nunan(1989)은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응답의 형태인 인지적 수행 요구(Cognitive Performace Demands)에 따라 과업을 분류한다. 역시 최근의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Peterson(1991)의 분류는 학습자의 능숙도 단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적으로 나누어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는 Ur(1984)의 과업 중심의 듣기 과업 분류는 (표1)과 같다. Ur(1984)는 듣기 연습의 형태를 간단하고 짧은 것에서 시작하여 길고 복잡한 형태로 난이도별 범주로 분류하였다. 크게 학습자가 외국어의 음, 음의 결합과 강세, 억양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각청취와, 단순한 수동적인 연습에서 다른 언어 기능이나, 상상력과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좀 더 세련된 언어과업을 위한 이해 청취 연습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지각 청취 내에서는 단어 수준 연습과 문장 수준 연습이 포함되고, 각각은 구어 과업과 읽기 쓰기 과업으로 나뉜다. 이해청취는 반응 없이 듣기와 듣고 짧게 반응하기, 듣고 긴 반응하기,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로 나뉜다.

(표1) Ur(1984)의 듣기 과업 유형

지각 청취	단어 수준 연습	구 어 과	반복하기
		업	모국어와 영어의 소리를 식별하기 일치하는 단어 구별하기
	읽 기 쓰 기과업	읽 기 쓰	옳은 단어 찾기
		기과업	일치하는 단어 쓰기
문장수준연습	구 어 과	구 어 과	반복하기
		업	어군 식별하기
	읽 기, 쓰 기 과업	읽 기, 쓰	강세, 비강세 식별하기 억양 식별하기
기 과업		받아쓰기	
이해 청취	반응 없이 듣기	대답 없이 듣기만 하기	
		들으면서 교재 따라 읽기	
		익숙한 교재 내용 듣기	
		시각 자료를 보며 듣기	
		교사의 비격식적인 말 듣기	
		오락을 위한 듣기	
	듣고 짧게 반응하기	지시에 따르기(신체반응, 모형쌓기, 그림 그리기 등)	
		항목에 표시하기(체크, 동그라미표 등)	
		참, 거짓 연습	
		잘못된 것 찾기	
		빈 칸 채우기	
		정의를 추측하기	
	듣고 긴 반응하기	특정 정보 노트하기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 표시하기	
		배치도, 도표, 가계도, 그래프, 지도에 표시하거나 변경	
		따라하기와 받아쓰기	
		바꾸어 말하기와 쓰기	
		질문에 응답하기	
이해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			
예상하기			
공란 채우기			
요약하기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	문제 해결하기
		Jigsaw 칭취
		해석적 칭취
		평가적 분석과 문체 분석

2.3 중학교 영어과 7차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

2.3.1 중학교 영어과 7차 교육과정의 특성

제 7차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은 제 6차 중학교 영어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과 근간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교육부, 1997).

(1) 생활 영어 중시

제 7차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지시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제 7차 중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은 일상 생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

(2) 언어 사용 능력 신장

기존의 영어 교육이 초보 단계부터 문자 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고, 교사들은 구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시간에 영어로 가르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중학교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형성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키면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신장하며, 다양한 학습 경험과 과업을 통해 유창성과 정확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3) 과업 • 과정/ 과업 중심의 학습 중시

7차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과업 중심의 교육에서는 소집단을 관리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는 지를 감지하는 모니터의 역할과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4) 성취 기준의 명료화 및 상세화

제 7차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의 명료화와 의사 소통 기능과 예시문, 소재, 기본 어휘를 상세화하였다. 성취기준은 약 330개로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6배 정도 상세화하였으며,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과 기본 어휘 수를 크게 늘려 교사나 학생에게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다양한 표현을 익히고 성취해야할 목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제 7차 중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며, 동일 단계 내에서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을 하도록 권장하여 수월성 교육을 도모하고 학습 부진 학생에게 보충 과정을 제공하여 실력을 정상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은 소집단 과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각자의 학습 능력에 따라 학급을 소집단으로 편성하고,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수업을 제공한다.

2.3.2 중학교 영어과 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

성취기준은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교육 과정 내용 제시의 상세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교육부, 1997). 성취기준은 교과별로 설정된 교육 과정상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관한 것으로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능력에 관해 학생의 입장에서 진술되며, 내용 기준과 수행 기준으로 형성된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중학교 영어과 7차 교육 과정 성취 기준

	a	b
7	<p>(1)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를 이해한다.</p> <p>(2)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주제를 이해한다.</p> <p>(3) 간단한 대화를 듣고 상황 및 화자간의 관계를 이해한다.</p> <p>(4)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연결시킨다.</p> <p>(5)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표나 그림을 완성한다.</p> <p>심화과정</p> <p>(1)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p> <p>(2) 간단한 말을 듣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알고 근거를 이해한다.</p>	<p>(1) 어조와 억양으로 화자의 느낌이나 정서를 파악한다.</p> <p>(2)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이해한다.</p> <p>(3)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p> <p>(4) 쉬운 내용의 사실적 정보와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p> <p>심화과정</p> <p>(1)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p> <p>(2) 짧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p>
8	<p>(1)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파악한다.</p> <p>(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p> <p>(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p> <p>(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p>	<p>(1) 일상 생활에 관한 대화의 일부를 듣고, 문맥을 통하여 상황을 추측한다.</p> <p>(2)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말을 듣고 비교, 대조한다.</p> <p>(3)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한다.</p> <p>(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p> <p>(5)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p>

	<p>한다.</p> <p>심화과정</p> <p>(1)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기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해한다.</p> <p>(2)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의 근거를 찾는다.</p>	<p>의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이해한다.</p> <p>심화과정</p> <p>(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 및 목적을 이해한다.</p> <p>(2)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분위기를 파악한다.</p>
9	<p>(1)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이해한다.</p> <p>(2)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p> <p>(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p> <p>(4) 비교적 긴 지시나 설명을 듣고, 절차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p> <p>심화과정</p> <p>(1)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그 결말을 추론한다.</p> <p>(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화자들의 느낌이나 정서, 감정 등을 이해한다.</p>	<p>(1)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파악한다.</p> <p>(2)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그 근거를 찾는다.</p> <p>(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과 분위기를 이해한다.</p> <p>(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등장인물의 느낌, 정서, 견해 등을 이해한다.</p> <p>심화과정</p> <p>(1)관심 있는 노래나 시를 듣고 감상한다.</p> <p>(2)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대화의 일부를 듣고, 문맥을 통하여 상황을 추측한다.</p>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학년에 따라 수준별로 자세히 제시된 성취기준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2.4 선행 연구 분석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듣기 부분을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교과서의 듣기 내용이 얼마나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였는지에 관해 분석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그 중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9단계 성취기준으로 분석한 연구자들 중, 김지연(2005)은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 대의 및 세부사항 이해'가 전체의 과반수의 비율을 차지하여 편중된 분포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과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9단계와 이전 단계인 7, 8 단계를 함께 분석한 연구자들 중, 구제권(2004)은 7차 교육과정 9단계 듣기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7,8 단계 성취 기준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전체 듣기 과업 중 9단계에 해당하는 항목은 전체의 62.4%를 차지하고 'pre-9단계'에 속하는 항목이 전체의 37.6%로 7차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성취기준으로 분석한 연구자들 중, 기존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다른 학자의 기준을 보완하여 함께 사용한 연구자들도 있었다. 이들 중,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인선미(2003)는 Peterson(1991)의 기준 중 성취기준과 관련 있는 7개의 항목만 기준으로 삼았으며,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을 통해 성취기준과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성취기준 항목 분포가 과반수를 넘어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들이 성취기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7차 교육 과정 이래로 행해진 중학교 영어 교과서 듣기 부분을 과업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여러 학자의 과업 분류 기준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7차 교육과정을 따르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과업을 Nunan(1989)의 기준을 중심으로 다른 기준과 통합한 형태의 과업분류 기준을 사용한 연구자들이 있다. 이들 중, 손상수(2002)는

Nunan(1989)의 분류에 Ur(1984)의 분류를 보완한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과업의 제시가 상호작용 영역에서 부족하여 교육과정에서 목표하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며, 과업이 특정 항목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과업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Nunan(1989)의 과업 분류를 중심으로 Ur(1984), Morley(1991)의 기준을 비교 보완한 기준을 사용한 최지영(2006)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과업을 분석하였다. 결과로는 각 과업이 특정 항목에 편중되게 나타나고, 상위단계의 보다 난이도 있는 과업이 적게 나타나며, 상호작용적 과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보다 다양하며, 보다 도전적인 듣기 과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7차 교육과정을 따르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과업을, Peterson(1991)의 과업 분류를 중심으로 다른 연구자의 분류를 보완한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자들이 있다. 이들 중,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허영미(2003)는 Peterson(1991)의 과업 분류 기준에 Richards(1983)의 과업 분류 기준과 제 7차 영어과 성취기준의 분류로 보완한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상호작용식 과업의 유형이 부족하고, 과업의 형태가 편중되게 나타나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에, 보다 다양한 듣기 과업의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듣기 과업을 분석한, 정주연(2003)은 Peterson(1991)의 기준에 Richard(1990), Nunan(1989)의 분류로 보완한 기준으로 과업을 분석하였다. 과업의 형태는 출판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상향식과 상호작용식 과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7차 교육과정을 따르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과업을 Ur(1984)의 기준을 중심으로 다른 학자의 분류를 보완한 연구자들이 있다. 이들 중, 중학교 1,2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김향남(2002)은 Ur의 기준에

Morley(1991), Peterson(1991), Nunan(1989), 제 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참고하여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결과는 듣기 과업이 특정 항목에만 편중되어 나타나고 해당 과업이 없는 항목이 많았고,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의 상위 단계의 듣기 과업의 제시가 적고, 과업 유형이 편중되어 나타나므로, 보다 다양한 과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과업 분류 기준을 하나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각각 분석한 연구자들도 있다. 이들 중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김태완(2001)은 Peterson(1991)의 분류를 중심으로 Richards(1983)의 분류와 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으로 보완한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 Ur(1984)기준을 토대로 Richards(1983), Morley(1991), Nunan(1989)의 과업 분류를 보완한 기준으로 분석한다. 결과로는 듣기 과업이 하향식 과정에 많이 치우쳐 있고, 과업의 형태도 편중되어 나타나며, 7차 교육과정의 많은 항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김용희(2004)는, 먼저 Morley(1991)와 Richards(1983)의 분류기준을 통합한 과업분류 기준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 Ur의 분류 기준으로 분석한 후, Peterson(1991)의 분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은 학습자의 이해를 확인하는 단순한 과업이 많았고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상호작용적 과업이 매우 적어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라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치 못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제 7차 교육과정 듣기 성취기준을 분석하는 연구는, 특정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취기준과 다른 분류 기준을 통합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성취 기준만을 기준으로 삼고, 전 학년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각 학년별로 각 단계의 성취기준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 개

정 이후에 행해진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과업에 관한 연구는 분류 기준 선정 시, 여러 학자의 기준을 연구자 임의로 통합한 기준을 많이 사용하여 분류 기준의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 2, 3학년의 듣기 교과서의 듣기 부분이 각 학년별로 각 단계의 성취 기준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둘째, 여러 과업 분류 기준 중 듣기과업 유형을 수준별로 세부적으로 제시한 Ur(1984)의 기준을 가지고 과업을 분류하여, 제시된 과업의 유형과 다양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 중, 일선 학교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3종 교과서를 선택하여 분석한다. 3종의 교과서는 각각 장영희 외 5인이 편찬한 두산, 이성호 외 5인이 편찬한 지학사, 이병민 외 4인이 편찬한 천재 출판사의 것이며, 편의에 따라 임으로 A, B, C로 지칭한다. 분석되는 교과서별 듣기 과업 부분은 듣기 영역이 아니어도, 듣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분석하였다. 분석범위에 포함되는 교과서별 듣기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3) 교과서 분석 범위와 내용

출판사	듣기 영역	내용
두산동아 (장영희 외)	Listen and Find Out (Draw, Unerstand, Do)	Ready: 간단한 대화를 듣고, 제시된 대화 지문의 빈칸에 단어를 채우는 과업 Get set: 간단한 대화를 듣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 Go: 다양한 종류의 듣기 과업 제시
	Sounds	발음을 학습하는 부분
	Finish Line의 일부분	단원을 마무리 하는 부분으로 듣기를 포함 한 다양한 영역의 문제로 구성
	One More Step의 일부 분	배운 내용을 응용하는 부분
지학사	Let's Listen	Warm-up: 짧은 대화를 듣고,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 Listen in: 보다 긴 대화를 듣고, 질문에 대

		답하기
	Listening Activities	듣기를 중심으로 한 학습과업 부분
	Sounds	연음현상과 강세 발음을 학습하는 부분
	Let's talk - 일부분 Interactions - 일부분, Challenges - 일부분 Project - 일부분	듣기와 다른 언어 기능이 함께 학습되는 부분
천재	Warm Up의 일부분	단원을 시작하기 전, 단원과 관련된 기본 내용을 점검하는 부분
	Listen and Do	이후에 Dialogue에서 배운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 듣기 영역으로, 말하기, 쓰기, 읽기와 통합한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
	Sounds	Dialogue에 제시된 단어와 문장 중심을 글자와 소리, 이어 말하기, 문장 강세를 익힘
	Play and Talk의 일부분	학습한 언어 형식을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모둠별로 학습하는 과업
	Do It Yourself의 일부분	단원에 제시된 학습목표의 성취도를 점검하는 통합적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
	Make Up의 일부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보충하는 부분
	Extend it의 일부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소화했을 경우 이 부분에서 심화형 문제 학습

위의 표에서 A 교과서의 Listen and Find out 부분은 청취과업의 종류에 따라 그리기가 많이 들어가면 Listen and Draw로 일반적인 문제형식이 많은 경우 Listen and Understand 으로, 지도에 움직임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과업은 Listen and Do로 명칭이 변화한다.

Listen and Find out 부분은 Ready!, Get Set!, Go!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Ready!부분은 2~3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화를 듣고, 제시된 대화 대본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는 과업이다. Get SET!은 짧은 대화를 듣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형태이고, 그림을 보고 박스에 체크하는 것부터 빈칸 채우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제시된다. Go!부분은 노래 감상하

기부터, 복잡한 그림에서 대화의 주인공을 고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업으로 구성된다. Sounds는 발음, 연음, 강세, 억양 등을 익히는 부분으로 듣고 따라하는 형태이다. Finish Line은 해당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총 복습하는 부분으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모든 영역에 관한 과업이 제시되고, 이 중 듣기 과업은 1/3을 차지한다. One More Step 은 배운 내용을 응용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전 영역의 다양한 과업으로 구성된다.

B 교과서의 Let's Listen 부분은 Warm-up과 Listen in로 나누어지며, Warm-up은 단원의 중심 화제를 담고 있는, 2-3문장 정도의 짧은 대화로 구성되고, “여러분이 사는 곳의 현재 날씨는 어떻습니까?”와 같이 화제를 학생의 경험과 연결시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돕는다. Listen in은 Warm-up 보다 다소 긴 대화로 구성되고, 말하기 연습과 함께 대화와 일치하는 그림 고르기, 등장인물 관계 묻기 등의 여러 가지 과업과 결합된 형식을 가진다.

Listening Activities는 듣기과 2-3개 정도의 과업으로 구성되고 듣고 번호 매기기 도표나 그림 완성하기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다. Sounds는 발음과 연음, 강세, 끊어 읽기, 억양 등을 듣고 따라하며, 강세나 억양을 표시하는 형태의 과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Let's Talk은 원래 말하기를 위한 부분이나 듣기 영역과 함께 제시되어진다. A, B 두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며, A는 주로 대화를 듣고 문장의 순서를 숫자로 나타내는 과업이고, B는 대화를 듣고 빈 칸에 들어갈 표현을 보기에서 고르는 과업이다.

Functions 의사소통 기능을 익히기 위한 부분으로, 앞에서 배운 중심 표현을 상황별로 나누어 듣고 따라하면서 정리하는 과업으로 구성된다. Interactions는 듣기와 말하기를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으로 A, B 두 개의 과업으로 구성되고 듣기 과업은 듣고 빈칸에 알맞은 표현 넣거나 번

호 매기기, 줄긋기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다. Challenges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한 보충 심화 과업으로 3~4문제로 구성되고, 듣기 과업은 빈칸 채우기, 받아쓰기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Project는 과업 중심의 과업으로 듣기 과업으로는 음악이나 시를 듣고 감상하며 따라 읽는 과업이 제시된다.

C교과서의 Warm Up 부분은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단원과 관련된 어휘 기본적 표현, 상황 등을 접거하는 부분으로 A문제와 B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듣기과업은 제시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3학년 교과서부터는 Warm Up에 듣기는 제시되지 않는다. Listen and Do 부분은 단원과 관련된 대화문인 Dialogue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학습하며 듣기 위주의 과업으로 구성되지만, 읽기, 쓰기 등의 다른 기능과 함께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Sounds부분은 말하기 과업인 Let's talk 이후에 행해지는 과업으로 Dialogue에 나오는 단어의 억양, 강세, 발음과 각종 발음 규칙을 배운다.

Play and Talk 부분은 앞의 여러 과업을 통해 익힌 문장과 표현을 게임과 노래와 같은 재미있는 과업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보는 부분으로 주로 그룹별로 이루어진다. 말하기 과업이 주가 되지만, 시나 노래를 듣는 듣기 과업이 제시되어 있다. Do It Yourself 부분은 단원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했는지 알아보는 문제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모든 영역에서 제시되어 있다. A,B,C,D의 네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며, A과업이 듣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Make Up은 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 학습자의 학습이 미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부분으로 주로 A, B 과업으로 구성되며 A번이 듣기 문제이다. Extend It은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하는 심화학습을 위한 부분으로 학습자가 단원의 내용을 충분히 학습한 후에 하는 과업이다. 주로, A, B 두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며, A가 듣기

과업이다.

3.2 분석 기준

본 연구는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과업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다.

(표4)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기준

순서	분석 기준
1	7차교육과정의 듣기 성취기준 7a,7b, 8a, 8b, 9a, 9b
2	Ur(1984)의 과업 중심 듣기 과업 분류

먼저,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을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듣기 영역 성취기준에 따라, 성취 기준에 제시된 항목별로 듣기과업의 분포도를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그 다음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을 Ur(1984)의 과업 중심 듣기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지각영역과 이해영역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 유형의 다양성과 적절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분석 기준에 제시된 항목간의 경계가 분명한 기준도 있으나 불분명한 부분은 연구자 임의로 그 경계를 두어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자 임의의 구분 중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성취기준의 7a,b에 제시된 ‘일상생활에 관한 말’과 8a,b과정과 9a,b 과정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주제, 화제에 관한 말’ 사이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여 분석자가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교육 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관한 말’은 생활영어, 생존 수준의 대화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은 스포츠, 신문, 잡지기사, 연극, 문학, 영화에 관한 말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으로 두 가지를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연구자는 교육과정의 정의를 토대로,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자료(대화, 이야기)를 사용 빈도와 어휘의 난이도에 따라 내용과 사용기능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여, (표5) 같이 분류하였다.

(표5) 일상생활에 관한 말/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 구분

	주제 및 소재
일상생활에 관한 말	날씨(Weather), 계절(Seasons), 기분(Feelings), 인사(Greeting), 길 묻기(Asking Directions), 계획(Planning), 방문(Visiting), 의무(Duties), 숙제(Homeworks), 취미(Hobbies), 요청(Asking),주문(Ordering), 초대(Invitations), 나이(Ages), 쇼핑(Shopping), 시험(Tests), 일정(Schedule), 약속(Appointments), 직업(Job),전화(Phoning), 비교(Comparison), 외모(Appearance), 자기소개(Self-introduction), 숙제(Homeworks)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	스포츠(Sports), 신문(Newspaper), 잡지기사(Articles in Magazines), 연극(Plays), 문학(Literature), 영화(Movies), 환경(Environments), 문화(Cultures), 경험(Experiences), 음식(Foods), 기내방송(Flight Announcements), 여행(trips), 방학(Vacations), 축제(Festivals), 전시회(Exhibitions), 식이요법(Diet), 수요와 공급 (Demand & Supply), 공부습관(Study Habits), TV Program, 음악 (Music), 뉴스(News), 발명품(Inventions), 광고(Advertisements)

Ur(1984)의 기준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을 분류한 것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논의

4.1. 성취 기준에 따른 듣기과업¹⁾ 분석

중학교 교과서 A, B, C에 제시된 듣기 과업을 듣기 영역 성취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4.1.1. A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표6) A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표

A 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
7a&7b	항목	72	61	53
	비율	97.2%	77.2%	62.4%
8a&8b	항목	1	16	30
	비율	1.4%	20.2%	35.2
9a&9b	항목	1	2	2
	비율	1.4%	2.6%	2.4%
합계	항목	74	79	85
	비율	100%	100%	100%

A교과서의 성취기준 분석표를 학년별로 살펴보자. 첫째, 먼저 A 교과서 1학년 과정에 제시된 듣기 과업을 살펴보자., 1학년의 듣기 과업은 총 74가지이고, 이 중 가장 7단계 성취기준이 72번의 97.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8단계와 9단계는 각각 1번씩 1.4%를 차지한다.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7단계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2, 3 학년에 해당하는 8, 9 단계의 성취기준은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은,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학습

1)학자들은 보통 과업과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하므로 여기서는 과업과 과업을 같은 의미로 간주하여, 듣기 과업이 곧 듣기 활동의 의미를 지닌다.

수준을 고려해 듣기 과업의 수준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록2)에서 1학년 과정인 7단계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듣기과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7a의 '(5)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표나 그림을 완성한다'가 전체의 41.9%(31번)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반면,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항목은 7b의 '(4) 쉬운 내용의 사실적 정보와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와 7b의 심화 '(1)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로 교과서에 해당 과업이 없었다.

셋째, 7단계 외의, A교과서 듣기 과업이 8, 9 단계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거의 없었다. 8-a-(2), 9-b-심화(1)가 각각 1.4%를 차지하였고, 두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0% 였다.

다음으로, A 교과서 2학년의 듣기 과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2학년 교과서의 듣기 과업의 수는 총 79가지로, 이 중 7단계가 77.2%(61번)를 차지하고 다음이 8단계로 20.2%(16번)를 차지하며, 9단계 성취기준은 2.6%(2개)를 차지한다. 2학년 과정의 교과이지만, 7단계의 성취 기준을 8단계의 성취기준보다 3배 이상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는 2학년 듣기 과업 자료가 8단계 성취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 보다는 7단계의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 월등히 많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록2)에서, 2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8단계 듣기 내용의 구성만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8a의 '(3)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와 8a의 '심화(1)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기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해한다.'가 각각 5.1%(4번)을 차지한다. 반면, 8단계의 성취기준 중 가장 낮은 빈도의 항목은 8a의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와 8a의 심화(2)의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의 근거를 찾는다.’, 8b의 ‘(2) 서로 다른 입장의 말을 듣고 비교 대조한다.’, 8b의 ‘(5)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이해한다.’, 8b의 심화 ‘(1)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분위기를 파악한다.’ 8b 심화 ‘(2)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분위기를 파악한다.’ 로 모두 6개의 항목이 0%를 차지한다. 이를 8단계의 많은 항목이 누락되어 다양한 듣기 과업이 제시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8단계 외의 다른 단계의 듣기 항목 중,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들은 7-a-(1), 7-a-(4), 7-a-심화(2), 7-b-(4), 7-b-심화(1), 7-b-심화(2), 9-a-(1), 9-a-(2), 9-a-(3), 9-a-심화(1), 9-a-심화(2), 9-b-(1), 9-b-(2), 9-b-(3), 9-b-(4), 9-b-심화(2)가 있었다.

A 교과서 3학년의 듣기 과업을 살펴보자. 첫째, A교과서 3학년의 듣기 과업의 개수는 총 85가지로 이 중 7단계 성취기준이 전체의 62.4%(53번)를 차지하고, 8단계 성취기준이 전체의 35.2%(30개)를 차지하며, 9단계 성취기준이 전체의 2.4%(2개)를 차지한다. 즉, 7단계의 성취기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3학년의 성취기준을 담고 있는 9단계 성취기준이 모든 단계의 성취기준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3학년 과정의 교과이지만 3학년의 성취기준은 거의 반영치 않고 그 보다 낮은 1학년의 성취기준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3학년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듣기 과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록2)에서 중3 단계에 해당하는 9단계 듣기 항목의 구성을 살펴보면, 9a 심화‘(1)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그 결말을 추론한다.’와 9b에 심화‘(1)관심 있는 노래나 시를 듣고 감상한다.’가 각각 1개의 과업을 가져,

1.2%를 차지한다. 그 외의 모든 9단계 항목들 즉, 9a(1), 9a (2), 9a(3) 9a(4) 9a 심화 (2) 9b(1) 9b(2) 9b(3) 9b(4) 9b 심화 (2) 등은 교과서에 해당되는 과업이 없다. 이를 통해 3학년 과정의 교과이지만, 상위 수준의 듣기 과업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셋째, 9단계 외의 다른 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듣기 항목은 7-a-(1), 7-a-(4), 7-a-심화(2), 7-b-(1), 7-b-(4), 7-b-심화(1), 8-a-심화(2), 8-b-(2), 8-b-(3), 8-b-심화(1), 8-b-심화(2)가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교과서는 학년이 올라가도 7단계의 성취기준이 제일 많이 적용되고 8, 9단계의 높은 수준의 성취기준은 적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교과서 과업에 해당되지 않는 성취기준 항목들이 있었다.

4.1.2. B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표7) B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표

B 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
7a&7b	항목	188	149	100
	비율	98.9%	73%	50.5%
8a&8b	항목	0	53	74
	비율	0%	26%	37.4%
9a&9b	항목	2	2	24
	비율	1.1%	1%	12.1%
합계	항목	190	204	198
	비율	100%	100%	100%

다음으로 B 교과서의 듣기 자료를 성취기준에 따라 분석해보자.

먼저, B교과서 1학년 과정에 제시된 듣기 과업 살펴보자. 첫째, 1학년 과정의 듣기 과업의 개수는 총 190개로 이 중 7단계는 188개로 전체의 98.9%를 차지하고 8단계는 해당 과업이 없으며, 9단계는 2개로 전체의 1.1%를 차지한다. 1학년 교과이므로 1학년에 해당하는 7단계 성취기준에 속한다.

둘째, (부록3)에서 B교과서 1학년 듣기 과업 중 7단계에 속하는 과업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7a의 ‘(5)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표나 그림을 완성한다.’가 전체의 36.8%(70번)를 차지하여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7단계 성취기준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항목들은 7b의 ‘(4) 쉬운 내용의 사실적 정보와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와 7b의 심화 ‘(2) 짧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로 0%를 보였다,

셋째, 7단계 외의 다른 단계에서 해당 과업이 없는 항목을 살펴보면, 8a(1), 8a(2), 8a(3), 8b(4), 8a심화(1), 8a 심화(2), 8b(1), 8b(2), 8b(3), 8b(4), 8b(5), 8b 심화(1), 8b 심화(2), 9a (1), 9a(2), 9a(3), 9a(4), 9a심화(1), 9a심화(2), 9b(1), 9b(2), 9b(3), 9b(4), 9b심화(2) 가 있다.

다음으로, B 교과서 2학년 과정에 제시된 듣기과업을 살펴보자. 첫째, 2학년 과정의 듣기 과업의 개수는 총 204개로 이 중 7단계는 149개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8단계는 53개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9단계는 2개로 전체의 1%를 차지한다. 2학년 교과이지만, 과업은 2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8단계보다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7단계의 성취기준을 3배 정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록3)에서 2학년 과정인 8단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취기준은 8a의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전체의 5.7%(12번)를 차지하고, 8단계 내에서는

22.6%를 차지한다. 반면, 8 단계에서 가장 낮은 빈도의 성취기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8a의 '심화(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기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해한다.'와 8b의 '(2) 서로 다른 입장의 말을 듣고 비교 대조한다.', '(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심화(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 및 목적을 이해한다.', '심화(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각각 0%를 차지하여 가장 낮았다.

셋째, 8 단계 외의 단계에서 누락된 항목들은 7-b-(4), 7-b-심화(2), 9-a-(1), 9-a-(2), 9-a-(3), 9-a-(4), 9-a-심화(1), 9-a-심화(2), 9-b-(1), 9-b-(2), 9-b-(3), 9-b-(4), 9-b-심화(2)가 있었다.

다음으로, B 교과서 3학년 과정에 제시된 듣기 과업을 살펴보자. 첫째, 3학년 과정의 듣기 과업은 총 198개로 이 중, 7단계가 100개로 전체의 50.5%를 차지하고 8단계는 74개로 전체의 37.4%를 차지하고 9단계는 24개로 전체의 12.1%를 차지한다. A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B 교과서의 3학년 과업도 3학년 과정인 9단계 보다는 1학년 과정인 7 단계에 약 4배나 많은 개수의 과업이 속하고 있어서, 3학년 수준의 듣기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부록3)에서 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9단계의 성취기준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9a '심화(1)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그 결말을 추론한다.'로 전체의 3.1%(6번), 9단계 내에서는 25%를 차지한다. 반면, 9단계 내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성취기준은 9a '심화(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화자들의 느낌이나 정서, 감정 등을 이해한다.'와 9b의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과 분위기를 이해한다.', '(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등장인물의 느낌, 정서, 견해 등을 이해

한다.’로 해당 과업이 없어 0%를 차지하였다.

셋째, 9단계 외의 다른 단계에서 누락된 항목들은 7-a-(1), 7-b-(1), 7-b-(4), 7-b-심화(1), 7-b-심화(2), 8-a-심화(1), 8-b-(1), 8-b-(2), 8-b-심화(1), 8-b-심화(2)가 있다.

전체적으로, B교과서는 A 교과서처럼 학년이 올라가도 성취기준의 단계는 7단계에 편중되어 있고, 8, 9단계의 과업은 매우 부족하다. 또한, 누락된 항목이 많고, 몇몇 항목에 집중되어 있다.

4.1.3. C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표8) C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

C 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
7a&7b	항목	84	84	55
	비율	88.4%	81.6%	58.5%
8a&8b	항목	9	12	35
	비율	9.5%	11.6%	37.2%
9a&9b	항목	2	7	4
	비율	2.1%	6.8%	4.3%
합계	항목	95	103	94
	비율	100%	100%	100%

C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과업의 성취기준 분류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 교과서 1학년 과정에 제시된 듣기 과업을 살펴보자. 첫째, 1학년 과정에 제시된 듣기 과업은 총 95개로 이것들 중, 7단계가 84개로 88.4%를 차지하고 8단계가 9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하며, 9단계가 2개로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1학년의 성취 기준인 7단계의 내용을 가장 많이 반영하

고 있어,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준에 맞는 듣기 과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부록4)에서 C교과서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7단계 듣기 과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7a의 '(5)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표나 그림을 완성한다.'가 30.5%(29번)를 차지한다. 반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7b'(4) 쉬운 내용의 사실적 정보와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와 7b '심화(1)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는 0%로 해당 과업이 없었다.

셋째, 1학년 교과서에서 7단계 이외의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은 항목은 8-a-(4), 8-b-(2), 8-b-(3), 8-b-(5), 8-b-심화(1), 8-b-심화(2), 9-a-(1), 9-a-(2), 9-a-(3), 9-a-(4), 9-a-심화(1), 9-a-심화(2), 9-b-(1), 9-b-(2), 9-b-(3), 9-b-(4), 9-b-심화(2)가 있다.

다음으로, C 교과서 2학년 과정에 제시된 듣기과업을 살펴보자. 첫째, 듣기 과업의 개수는 총 103개로 이 중 7단계는 84개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8단계는 12개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며, 9단계는 7개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2학년용 듣기 자료이지만 2학년 성취 기준인 8단계의 기준은 일부 과업들에만 적용되고 거의 대부분은 7단계의 기준에 적용되고 있어서 수준에 맞는 성취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록4)에서 2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8단계에 해당하는 듣기과업의 구성을 살펴보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8a의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가 3.9%(4번)를 차지한다. 반면, 2학년 8단계의 성취기준 중 가장 빈도가 낮은 항목은 8a '심화(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기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해한다.'와 8a '심화(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의 근거를 찾는다.’, 8b ‘(1)일상 생활에 관한 대화의 일부를 듣고, 문맥을 통하여 상황을 추측한다.’, 8b ‘(3)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8b‘(4)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8b‘심화(1)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 및 목적을 이해한다.’, 8b‘심화(2)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분위기를 파악한다.’로 0%를 차지했다.

셋째, 8단계 외의 단계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7-a-(4), 7-b-(4), 7-b-심화(1), 9-a-(1), 9-a-(2), 9-a-(3), 9-a-(4), 9-a-심화(2), 9-a-심화(2), 9-b-(1), 9-b-(2), 9-b-(3), 9-b-(4), 9-b-심화(2) 가 있다.

다음으로, C 교과서 3학년 과정에 제시된 듣기 과업을 살펴보자. 첫째, 3학년 과정의 듣기 과업은 총 94개로 7단계는 55개로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8단계는 35개로 전체의 37.2%를 차지하며, 9단계는 4개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3학년 듣기과업이지만, 성취기준은 여전히 7단계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특히 3학년의 성취기준인 9단계는 전체의 4.3%로 매우 적게 반영하고 있어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성취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3학년 A 교과서 9단계의 비율인 2.4% 보다는 많고, 3학년 B 교과서의 9단계 성취기준 비율인 12.1% 보다는 적었다. 따라서, 3학년 9단계 성취기준 달성도를 교과서별로 비교해보면, B 교과서가 3학년 성취기준을 제일 잘 달성했으며, 그 다음이 3학년 C 교과서가 달성도가 높고, 3학년 A 교과서가 달성도가 제일 낮았다.

둘째, (부록4)에서 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9단계에서의 듣기 과업의 구성을 살펴보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9a ‘심화 (2)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그 결말을 추론한다.’로 전체의 2.1%(2번)를 차지하였다.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9a '(1)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이해한다.', 9a'(4)비교적 긴 지시나 설명을 듣고, 절차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 9a'심화(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화자들의 느낌이나 정서, 감정 등을 이해한다.', 9b'(1)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9b'(2)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그 근거를 찾는다.' 9b'(3)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과 분위기를 이해한다.', 9b'(4)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등장인물의 느낌, 정서, 견해 등을 이해한다.', 9b'심화(1)관심 있는 노래나 시를 듣고 감상한다.', 9b'심화(2)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대화의 일부를 듣고, 문맥을 통하여 상황을 추측한다.'로 각각 0%를 차지하였다.

셋째, 9단계 이외의 단계에서 빠진 성취기준 항목은 7-a-(4), 7-b-(1), 7-b-(4), 7-b-심화(1), 8-a-(4), 8-a-심화(1), 8-b-(2), 8-b-심화(2), 가 있다.

다음으로, C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앞에서 분석한 A, B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가도 성취기준은 1학년 성취기준인 7단계의 성취기준을 압도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2, 3 학년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단계 내에서도 특정 성취기준 항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해당 과업이 없는 성취 기준이 많았고,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인 8, 9 단계에서 더 두드러졌다.

4.2 Ur(1984)의 과업 분류에 따른 듣기 과업 분석

중학교 과정의 3종 영어 교과서의 듣기 과업을 Ur(1984)의 듣기 과업 유형 분류를 따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A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표9) A 교과서 듣기유형 분석표

A 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지각 청취	단어수준 연습	15	14.4%	19	16.8%	18	14.4%
	문장수준 연습	27	26%	35	31%	28	22.4%
소계		42	40.4%	54	47.8%	46	36.8%
이해 청취	반응 없이 듣기	0	0%	0	0%	0	0%
	듣고 짧게 반응하기	62	59.6%	57	50.4%	67	53.6%
	듣고 긴 반응하기	0	0%	2	1.8%	11	8.8%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	0	0%	0	0%	1	0.8%
소계		62	59.6%	59	52.2%	79	63.2%
총계		104	100%	113	100%	125	100%

A 교과서에서의 듣기과업은 1학년 104개 2학년 113개 3학년 125개로 총 342개의 과업을 가지고, 이것은 다른 B 교과서나 C 교과서에 비교할 때 A 교과서의 듣기 과업의 양이 제일 적었다.

먼저, 1학년 과정에 제시된 듣기 과업 유형의 분포부터 살펴보자. 첫째, 지각청취가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이해청취는 전체의 59.6%를 차지하여, 이해 청취보다 지각청취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맥락 없이 단순히 단어나 문장을 반복 연습하는 지각청취보다는 실제 청취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청취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각청취의 영역 내에서는, 단어수준 연습은 전체의 14.4%를 문장 수준은 전체의 26%를 차지하여, 문장 단위의 연습이 단어 단위의 연습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부록5)를 보면, 단어 수준의 연습 내에서는 구어과업(Oral activities)이 전체의 13.4%로 1%인 읽기 쓰기 과업 보다 비중이 매우 높았다. 지각청취의 문장 수준의 연습 내에서는 구어과업은 전체의 20.2%를 차지하고, 읽기, 쓰기과업은 전체의 5.8%를 차지하여 문장 수준의 연습에서도 구어과업이 읽기 쓰기 과업보다 비중이 높았으며,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과업이 읽고 쓰는 과업 보다 높은 것은 학습자의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지각 청취 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과업은 문장수준에서의 구어과업에 속하는 ‘어군 식별하기’가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역시 같은 범주에 속하는 ‘반복하기’가 9.6%를 차지한다. 지각 청취 총 10개 유형 중 1학년 A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는 과업은 3개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1학년 A 교과서 이해청취 부분을 살펴보면, ‘반응 없이 듣기’는 0%로 해당 과업이 없고, ‘듣고 짧게 반응하기’는 전체의 59.6%를 차지하며, ‘듣고 긴 반응하기’와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는 0%로 해당 과업이 없다. 1학년의 이해청취 부분이 지나치게 ‘짧게 반응하기’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듣고 길게 반응하기’나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와 같은 보다 복잡하고 세련된 과업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해 청취부분의 듣고 짧게 반응하기 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과업은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표시하기’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항목에 표시하기’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이해 청취부분 내에서 듣고 짧게 반응하기 외의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은 없었으며,

이해 청취 총 26개 유형 중 속하는 과업이 없는 것은 21개로 듣기 과업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A 교과서 2학년 듣기 과업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자. 첫째, 지각청취와 이해청취를 살펴보면, 지각청취가 전체의 47.8%를 이해청취가 전체의 52.2%를 차지하여 이해청취가 지각청취 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음이나 억양을 구분하는 반복 연습으로 이루어진 지각청취보다는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이해청취가 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각 청취 내에서는 단어수준 연습이 전체의 16.8%를 문장수준연습이 전체의 31%를 차지하여 단어 수준 연습 보다 문장 수준 연습이 2배 가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단어 수준 연습 내에서는 구어과업이 전체의 16.8%를 차지하고 읽기 쓰기 과업은 0%로 해당 항목이 없어 단어 수준 내에서는 듣기 과업이 구어과업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수준의 연습 내에서는 구어 과업이 전체의 21.2%를 읽기 쓰기 과업이 전체의 9.8%를 차지하여, 문장 수준 내에서도 구어과업이 읽기 쓰기 과업 보다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록5)에서 지각 청취 내에서 비중이 제일 많은 항목은 문장 수준 연습의 구어 과업에 속하는 ‘어군 식별하기’가 1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문장 수준 연습의 반복하기가 9.7%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지각 청취 내에서 A 교과서 2학년 과정이 제시하고 있지 않은 과업 유형은 총 10개 중 4개였다.

넷째, 이해 청취 내에서는 ‘반응 없이 듣기’가 전체의 0%를 차지하고 ‘듣고 짧게 반응하기’가 전체의 50.4%를 차지하고, ‘듣고 긴 반응하기’가 전체의 1.8%를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가 전체의 0%를 차지한다. A 교과서의 2학년 듣기 과업도 단답식 형태의 연습문제 형식인 ‘듣고 짧게 반응

하기'에 집중되어 있고, 보다 세련되고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듣고 긴 반응하기'나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의 비중이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듣고 긴 반응하기'의 경우 1학년 교과서 보다 그 비중이 늘어나, 학년이 올라가서 듣기 과업의 수준이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부록5)에서 이해 청취 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듣고 짧게 반응하기를 살펴보면, '항목에 표시하기'가 전체의 19.4%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표시하기'가 전체의 16.8%를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해 청취 내에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총 26 항목 중 19개였고, 이를 통해 A 교과서 2학년의 이해 청취 부분도 1학년 과정과 마찬가지로 편중되어 있고, 이는 B 교과 15개에 C 교과 17개와 비교하여 2학년 과정의 3종 교과 중 가장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교과서 3학년의 듣기 과업을 살펴보자. 첫째, 지각청취는 전체의 36.8%를 이해청취는 63.2%를 차지하여 실제 의사소통 과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해 청취의 비중이 지각청취 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각청취 내에서는 단어수준 연습이 전체의 14.4%를 문장 수준 연습이 전체의 22.4%를 차지하여, 음의 결합이나 단어와 억양을 식별하는 문장 수준의 연습이 하나의 단어에서 나타나는 음 결합을 연습하는 단어수준의 연습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단어 수준 내에서는 구어과업이 14.4% 읽기쓰기 과업이 0%를 차지하고, 문장수준 연습은 구어 과업이 18.4%를 차지하고 읽기 쓰기 과업은 전체의 4%를 차지하여, 1,2 학년과 마찬가지로 구어 과업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각청취 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듣기 과업 유형을 살펴보면, 문장 수준 연습의 구어 과업의 반복하기가 12.8%로 가장 높았고, 단어수준

연습의 구어과업에서 ‘반복하기’, ‘일치하는 단어 구별하기’가 각각 7.2%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지각 청취 내에서 A 교과서 3학년 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총 10개 중 5개로 과반수가 제시되지 않아 특정 유형에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같은 학년 과정의 B 교과서 3개 보다는 편중되고, C 교과서 6개에 비해서는 보다 다양한 과업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3학년 듣기 과업의 이해 청취 부분을 살펴보면, 반응 없이 듣기는 0%를 차지하고, 듣고 짧은 반응하기는 전체의 53.6%를 차지하고 듣고 긴 반응하기는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는 전체의 0.8%를 차지한다. 이해 청취 부분 중 ‘듣고 짧은 반응하기’가 1, 2학년처럼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1, 2 학년 듣기 과업보다 듣고 긴 반응하기에 해당하는 과업이 늘었고, 가장 높은 수준인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도 해당 과업이 생겼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듣기 과업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지만, 여전히 중학교 과정은 영어 학습의 초보적인 단계이므로 높은 수준의 과업 보다는 간단한 과업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부록5)에서 이해청취 내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듣고 짧게 반응하기에 속하는 과업을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과업은 1, 2 학년에서와 동일하게 ‘항목에 표시하기’와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표시하기’가 가장 많았고, 각각 19.2%와 17.6%를 차지하였다. 듣고 긴 반응하기에 속한 항목들은 빠진 과업이 없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해청취 영역 중 A 교과서 3학년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유형은 전체 26개 중 12개로, 이는 B 교과서 15개 C 교과서 16개에 비해, 듣기 과업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B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표10> B 교과서 듣기 유형 분석표

B 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지각	단어수준 연습	24	11%	25	11.8%	17	7.4%
청취	문장수준 연습	66	29.9%	52	24.5%	61	26.5%
소계		90	40.9%	77	36.3%	78	33.9%
이해 청취	반응 없이 듣기	33	15%	23	10.8%	24	10.4%
	듣고 짧게 반응하기	89	40.5%	89	42.1%	100	43.5%
	듣고 긴 반응하기	8	3.6%	23	10.8%	24	10.4%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	0	0%	0	0%	4	1.8%
소계		130	59.1%	135	63.7%	152	66.1%
총계		220	100%	212	100%	230	100%

B 교과서는 1학년 듣기 과업 개수가 220개 2학년 듣기 과업 개수가 212개, 3학년 듣기 과업 개수가 152개로 총 662개의 듣기 과업으로 구성되고, 이것은 A, C 교과서에 비교하여 과업의 양이 훨씬 많으며, B 교과서에서 듣기 과업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1학년 듣기과업을 살펴보자. 첫째, 지각청취가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이해청취가 전체의 59.1%를 차지하여, 발음과 억양을 반복적으로 익히는 지각 청취보다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이해청취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각청취 내에서는 단어수준 연습이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문장 수준 연습이 전체의 29.9%를 차지하여, 문장 수준의 연습이 단어 수준의 연습보다 약 3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부록6)을 보면, 단어 수준 연습 내에서 구어 과업은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읽기 쓰기 과업은 0%로 해당 과업이 없었으며, 문장 수준의 연습에서는 구어과업이 15.8%이고 읽기 쓰

기 과업이 14.1%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지각청취에서는 말하는 과업이 읽기 쓰기 과업보다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록6)에서, 지각청취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업 유형을 살펴보면, 문장수준 연습의 구어과업에 속하는 ‘반복하기’가 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문장 수준의 읽기쓰기 과업에 속하는 ‘받아쓰기’가 9.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각청취 내에서 1학년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는 유형은 총 10개 중 3개였다.

넷째, 이해청취 내에서는 반응 없이 듣기가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듣고 짧게 반응하기가 전체의 40.5%를, 듣고 긴 반응하기가 전체의 3.6%를,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가 전체의 0%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짧게 반응하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반응 없이 듣기, 듣고 긴 반응하기,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 순임을 알 수 있다. A 교과서 보다 비교적 고른 과업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A 교과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반응 없이 듣기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다섯째, (부록6)에서 이해청취 내의 영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짧게 반응하기 영역을 살펴보면,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표시하기’가 2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많은 항목은 ‘항목에 표시하기’가 10.9%를 차지하였다. 이해청취 내에서, B 교과서 1학년에 제시되지 않은 과업의 수는 총 26개 중 16개로 과반수가 넘어 듣기 과업이 특정 유형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 교과서 2학년의 듣기 과업을 살펴보자. 첫째, 지각청취는 전체의 36.3%를 이해청취는 전체의 63.7%를 차지하여, 실제 의사소통 과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해 청취의 비중이 지각청취 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각 청취 내에서 단어수준 연습은 전체의 11.8%를 문장 수준의 연습은 전체의 24.5%를 차지하여 문장 수준의 연습이 단어수준 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록6)에서 보면 단어수준의 연습은 구어과업이 11.8%를 읽기 쓰기 과업이 전체의 0%를 차지하고, 문장수준의 연습 내에서는 구어과업이 전체의 15.1%를 읽기쓰기과업이 전체의 9.4%를 차지하여, 말하기 과업이 읽기쓰기 과업보다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록6)에서 지각청취 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면, 문장 수준 연습의 구어과업에 속하는 ‘반복하기’가 13.2%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단어 수준 연습의 구어 과업에 속하는 ‘반복하기와 문장 수준 연습의 읽기 쓰기 과업에 속하는 ‘받아쓰기’가 각각 6.1%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다. B 교과서 2학년 청취영역에 제시되지 않은 듣기 유형은 전체 10개 중 3개에 해당한다.

넷째, 이해청취 영역을 살펴보면, 반응 없이 듣기는 전체의 10.8%를 듣고 짧게 반응 하기는 전체의 42.1%, 듣고 긴 반응하기가 전체의 10.8%를,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는 0%를 차지하여, 짧게 반응하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응 없이 듣기와 듣고 긴 반응하기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A 교과서 2학년 과정과 비교하면, A 교과서는 짧게 반응하기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반면, B 교과서는 비교적 분산되어 있고, A 교과서에 없는 듣고 짧게 반응하기 영역의 과업도 제시하며, 긴 반응하기 영역의 속하는 과업의 비율도 A 교과서보다 약 5배나 높아서, A 교과서 보다 B 교과서가 듣기 과업 유형을 고르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부록6)에서 이해청취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인 듣고 짧게 반응하기를 살펴보면,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표시하기가 2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항목에 표시하기’가 12.7%로 그 다음

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해 청취 내에서 B 교과서 2학년에 제시되지 않은 유형은 총 26개 중 15개였다.

B 교과서 3학년의 듣기 유형을 살펴보자. 첫째, 지각청취가 전체의 33.9%를 이해청취가 전체의 66.1%를 차지하여, 실제 의사소통 과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해청취가 지각 청취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B 교과서의 듣기과업은 1학년 59.1%, 2학년 63.7%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해청취의 비중이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각청취 내에서의 단어 수준의 연습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문장수준 연습은 전체의 26.5%를 차지하여, 문장 수준의 연습이 단어 수준의 연습 보다 3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단어 수준 내에서 구어과업은 전체의 14.4%를 차지하고 읽기쓰기 과업은 전체의 0%를 차지하며, 문장 수준 연습 내에서 구어과업은 전체의 18.4%를 읽기쓰기 과업은 전체의 4%를 차지하여, 구어과업이 읽기쓰기 과업보다 월등히 많았다.

셋째, (부록6)에서 지각청취 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면, 문장 수준 연습의 구어과업에 속하는 '반복하기'가 13.9%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문장 수준의 '받아쓰기'가 8.3%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다. B 교과서 3학년 듣기 과업 중 지각청취 내에서 제시되지 않은 유형은 전체 10개 중 3개에 해당한다.

넷째, 이해청취는 반응 없이 듣기가 10.4%, 듣고 짧게 반응하기가 43.5%, 듣고 긴 반응하기가 10.4%,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가 1.8%를 차지하여, 듣고 짧게 반응하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2학년과 다르게 연구 및 토론하기 유형이 제시되어 듣기의 과업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A 교과서 3학년 이해청취 영역과 비교하여, 항목별로 보다 고른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고, 보다 높은 단계인 듣고 긴 반응

하기와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의 비율이 A 교과서 보다 높았다.

다섯째, (부록6)에서 이해청취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듣고 짧게 반응하기를 살펴보자.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지는 유형은 ‘항목에 표시하기’가 1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표시하기’가 17.4%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해 청취에서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유형의 수는 전체 26개 항목 중 15개를 차지하여 이해청취가 특정 항목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2.3. C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표11> C 교과서 듣기 유형 분석표

C 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지각 청취	단어수준 연습	12	9.3%	12	9%	12	8.3%
	문장수준 연습	34	26.4%	36	27%	36	24.9%
소계		46	35.7%	48	36%	48	33.2%
이해 청취	반응 없이 듣기	0	0%	0	0%	0	0%
	듣고 짧게 반응하기	72	55.7%	77	57.8%	92	64%
	듣고 긴 반응하기	9	7%	7	5.4%	4	2.8%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	2	1.6%	1	0.8%	0	0%
소계		83	64.3%	85	64%	96	66.8%
총계		129	100%	133	100%	144	100%

C 교과서는 1학년의 듣기 과업 수가 129개, 2학년의 듣기 과업수가 133개 3학년의 듣기 과업 수가 144개로 총 406개의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A 교과서의 과업 수보다 많고 B 교과서의 과업 수 보다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교과서의 듣기 과업을 학년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학년 C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을 살펴보자.

첫째, 지각청취는 전체의 35.7%이고 이해청취는 전체의 64.3%로 실제 의사소통 과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해청취에 속하는 과업이 지각 청취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음을 익히는 지각 청취 보다는 상황별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이해 청취에 더 많은 비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각 청취 내에서는 단어수준 연습이 전체의 9.3%를 문장수준 연습은 26.4%를 차지하여 문장 수준의 연습이 단어 수준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단어 수준 연습 내에서는 구어 과업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읽기 쓰기 과업은 전체의 0%로 해당 과업이 없었다. 문장 수준 연습 내에서는 구어 과업이 전체의 16.3%를 차지하고 읽기 쓰기 과업이 전체의 10.1%를 차지하여, 지각 청취 내에서는 구어 과업이 읽기 쓰기 과업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록7)에서 지각 청취 내에서 교과서에 나타난 듣기 과업 유형을 살펴보면, 단어 수준 연습의 구어과업에 속하는 ‘반복하기’와 문장수준 연습의 읽기 쓰기 과업에 속하는 ‘강세, 비강세 식별하기’가 각각 9.3%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문장 수준 연습의 구어 과업에 속하는 ‘어근 식별하기’가 전체의 8.5%를 차지하였다. 반면, 지각 청취 내에서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유형은 전체 10개 유형 중 3개였다.

넷째, 이해청취 내에서는 반응 없이 듣기만 하기가 0%를 듣고 짧게 반응하기가 전체의 55.7%를, 듣고 긴 반응하기가 전체의 7%를,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는 전체의 1.6%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듣고 단답식 형태의 짧게 반응하기가 제일 비중이 높으며 그 다음이 듣고 긴 반응하기,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 순임을 알 수 있다. C 교과서 1학년 과정 이해청취 부분은 상위 단계 듣기 영역인, 듣고 긴 반응하기가 A, B 교과서 1학년 과정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도 A, B 교과

서 1학년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C 교과서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를 통해, C 교과서 1학년 과정이 타 교과서 보다 난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부록7)에서 이해 청취 내의 가장 비중이 높은 영역인 듣고 짧게 반응하기에 나타난 듣기 과업을 살펴보면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표시하기’가 전체의 23.8%로 가장 많고 ‘항목에 표시하기’가 전체의 13.2%를 차지하여 그 다음으로 많다. 반면, 이해 청취 영역 중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듣기 유형은 전체 26개 항목 중 17개에 달하여 이해청취 영역은 특정 유형에 과업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C 교과서의 2학년 과정을 살펴보자. 첫째, 지각 청취가 전체의 36%를 이해 청취가 전체의 64%를 차지하여 이해청취가 지각청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각 청취 내에서 단어 수준의 연습은 전체의 9%를 문장 수준 연습은 전체의 27%를 차지하여 문장 수준의 연습이 단어 수준의 연습보다 3배나 높았다. <부록>에서 보면, 단어수준 내에서는 구어 과업이 9%를 읽기 쓰기 과업이 0%를 차지하였으며 문장 수준 연습에서는 구어 과업이 18%를 읽기 쓰기 과업이 9%를 차지하여 구어 과업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록7)에서 지각 내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과업 유형을 살펴보면, 단어 수준 연습의 구어 과업에 속하는 ‘반복하기’와 문장 수준 연습의 구어 과업에 속하는 ‘반복하기’, ‘어군 식별하기’, 문장 수준 연습의 읽기 쓰기 과업에 속하는 ‘강세 비강세 식별하기’가 각각 전체의 9%를 차지한다. 지각 청취의 듣기 유형 총 10개 중 C 교과서 2학년 과정에서 제시하지 않는 항목은 6개로, 특정 항목에 과업이 치우쳐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2학년 교과서의 이해 청취 영역을 살펴보면, 반응 없이 듣기가 전

체의 0%를 차지하고 듣고 짧게 반응하기는 전체의 57.8%를, 듣고 긴 반응하기는 전체의 5.4%를,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는 전체의 0.8%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이해 청취 영역에서 듣고 짧게 반응하기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듣고 긴 반응하기와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 반응 없이 듣기의 순임을 알 수 있다.

(부록7)에서, 이해 청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듣고 짧게 반응하기부터 살펴보자. ‘항목에 표시하기’가 3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 표시하기’로 전체의 13.5%를 차지하여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 이해 청취 내의 총 26개 유형 중 2학년 C 교과서가 제시하지 않는 과업 유형은 17개로 특정 유형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C 교과서 3학년 과정을 살펴보자. 첫째, 지각 청취는 전체의 33.2%를 이해청취는 전체의 66.8%를 차지하여 실제 의사소통 과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해청취가 지각 청취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각 청취 내에서 단어수준의 연습은 전체의 8.3%를 문장 수준의 연습은 전체의 24.9%를 차지하여 문장 수준의 연습이 단어 수준의 연습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부록7)에서, 단어 수준의 연습 내에서는 구어 과업이 8.3%이고 읽기 쓰기 과업이 전체의 0%였고, 문장 수준 내에서는 구어 과업이 전체의 16.6%이고 읽기, 쓰기 과업이 전체의 8.3%를 차지하여, 구어 과업이 읽기 쓰기 과업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록7)에서, 지각 청취 내의에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듣기 유형을 살펴보자. 가장 높은 비중의 항목들은 단어 수준 연습의 구어 과업에 속하는 ‘반복하기’, 문장 수준 연습의 구어 과업에 속하는 ‘반복하기’, 같

은 범주의 ‘어근 식별하기’와 문장 수준 연습의 읽기 쓰기 과업에 속하는 ‘강세, 비강세 식별하기’로 각각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반면, 지각청취 총 10개 유형 중 3학년 C 교과서에서 제시하지 않는 유형은 6개로, B 교과서 3개, A 교과서 5개와 비교할 때, 가장 과업 분포가 가장 편중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해청취 내에서, 반응 없이 듣기는 전체의 0%를 듣고 짧게 반응하기는 전체의 64%를, 듣고 긴 반응하기는 전체의 2.8%를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는 전체의 0%를 제공하여,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짧게 반응하기의 비중이 가장 크다. 중학교 과정에서 제일 높은 과정인 3학년 교과이지만, 듣기과업의 분포로 볼 때, 듣고 긴 반응하거나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와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듣기 과업 영역에서 1, 2학년 과정보다 더 적은 과업이 나타났고, 특히 가장 높은 단계인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는 해당 항목이 없어서 C 교과서는 학년별 듣기 과업 수준의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이해청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인 듣고 짧게 반응하기를 살펴보면, ‘항목에 표시하기’가 전체의 36.8%로 가장 많고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표시하기’가 14.6%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이해청취의 총 26개 항목 중 3학년 C 교과서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유형의 수는 16개로, A 교과서 12개 B 교과서 15개와 비교하여 과업 분포가 가장 편중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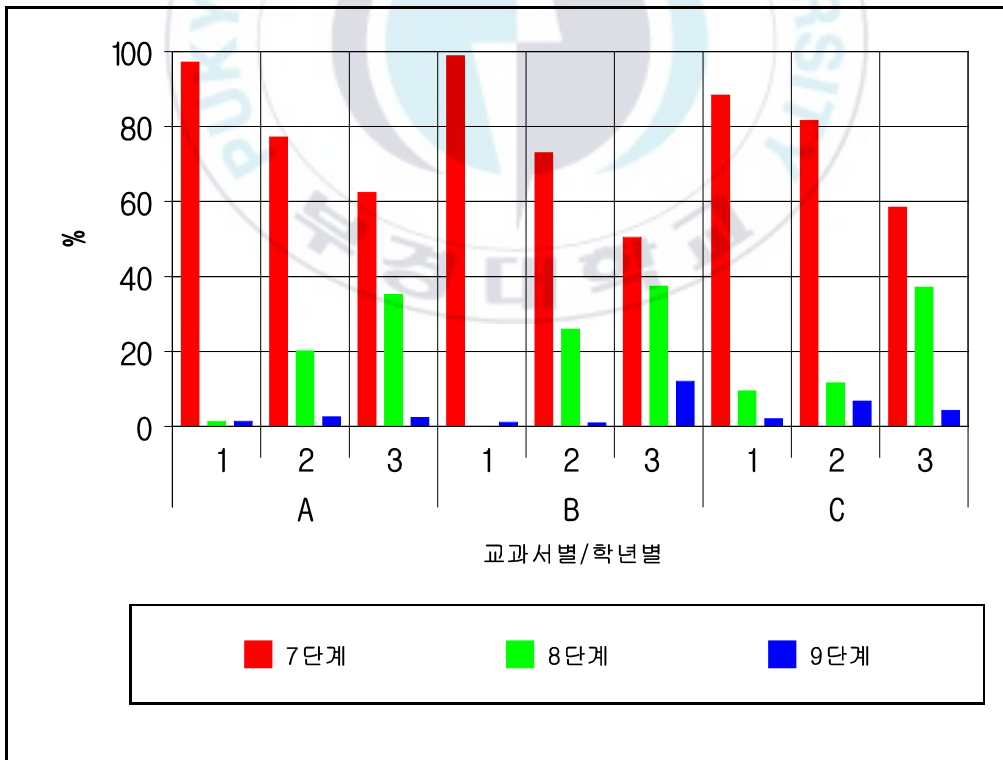
4.3. 분석 결과 요약 및 논의

4.3.1 성취 기준에 따른 듣기 과업 분석 결과

(표12) 교과서별 성취기준 분석표

교과서	학년	7단계		8단계		9단계		총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A	1	72	97.2	1	1.4	1	1.4	74	100
	2	61	77.2	16	20.2	2	2.6	79	100
	3	53	62.4	30	35.2	2	2.4	85	100
B	1	188	98.9	0	0	2	1.1	190	100
	2	149	73	53	26	2	1	204	100
	3	100	50.5	74	37.4	24	12.1	198	100
C	1	84	88.4	9	9.5	2	2.1	95	100
	2	84	81.6	12	11.6	7	6.8	103	100
	3	55	58.5	35	37.2	4	4.3	94	100

(그림1) 교과서별 성취 기준 분석도



먼저,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7 단계의 성취 기준에 속하는 과업인 전 학년과 교과를 초월하여 월등히 많다. 이것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학년별로 각 교과서에 나타난 해당 성취기준의 추이를 알아보자.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인 7단계 듣기 기준에 포함된 과업의 비율을 1학년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B 교과서 98.9%, A 교과서는 97.2%, C 교과서 88.4%의 순으로 높았으며, 1학년 과정의 교과들은 모두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7단계 성취기준을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 중, 2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성취기준 8단계의 듣기 기준에 속하는 비율을, B 교과서 26%, A 교과서 20.2%, C 교과서 11.6%의 순서로 높았고, 2학년 과정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8단계 성취기준을 반영하는 비율이 낮았다. 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성취기준 9단계의 듣기 기준에 속하는 과업의 비율을 3학년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B 교과서 12.1%, C 교과서 4.3%, A 교과서 2.4%, 순으로 높았고, 3학년 교과이지만 9단계 성취기준을 매우 적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듣기 성취기준 중 가장 많이 나타난 항목을 <부록1, 2, 3>에서 살펴보면, 1, 2, 3 학년을 통틀어 모든 교과서에서 7a '(5)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표나 그림을 완성한다' 와 7b의 '(3)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에 적게는 약20%에서 많게는 약 60%까지 듣기 과업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교과서의 듣기 과업이 학년과 상관없이 7 단계의 몇몇 성취기준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과업을 제공하려는 성취기준 본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체 성취기준 중 빠진 항목이 거의 모든 학년 모든 교과서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9 단계는 몇몇 항목을 빼고는 거의 해당하는 듣기 과업이 제시되지 않았다.

성취기준에 따른 중학교 A, B, C 교과서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교과서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7단계 성취기준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2, 3학년 교과서 듣기 과업에 해당 단계인 8, 9 단계 성취기준은 적게 반영되거나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각 학년별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짜여진 과업을 제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은 교과서의 종류와 학년과 관계없이, 7단계 성취기준의 몇몇 항목에만 지나치게 편중되게 나타나 있고 성취기준 중 해당 항목이 없는 문항이 많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과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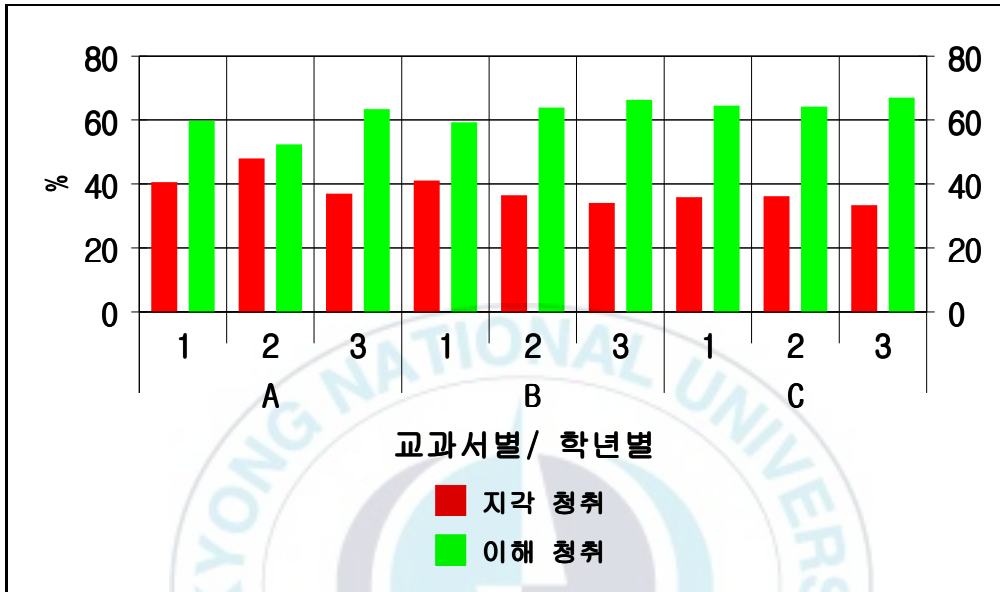
4.3.2. Ur(1984)의 과업 분류에 따른 듣기 과업 분석 결과

Ur의 듣기 과업 유형 분류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분류의 상위범주에서 하위범주로 순차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가장 상위 범주인 지각 청취와 이해청취로 분류해보자. 상위 범주 분류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3) 듣기과업 유형 상위 범주 분류에 따른 분석표

교과서	학년	지각 청취	이해 청취	합계
A	1	40.4	59.6	100
	2	47.8	52.2	100
	3	36.8	63.2	100
B	1	40.9	59.1	100
	2	36.3	63.7	100
	3	33.9	66.1	100
C	1	35.7	64.3	100
	2	36	64	100
	3	33.2	66.8	100

(그림2) 듣기과업 유형 상위 범주 분류에 따른 분석도



위의 그래프를 통해, 전 교과서, 전 학년을 통틀어 이해청취가 지각청취보다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앞서서도 거론한 바와 같이 Ur(1984)의 듣기 유형 분류는 간단하고 짧은 것에서부터 복잡한 형태로 난이도 별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부록(4, 5, 6)을 참고하면, 지각청취가 이해청취보다 간단하고 쉬운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의사소통 과업에 도움이 되는 이해 청취가 발음과, 강세 등을 반복적으로 익히는 지각 청취보다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7차 교육 과정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해청취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교과서는 C 교과서로 학년별로 64% 이상을 차지했다. 지각 청취와 이해청취 간의 차이는 저학년일 때는 적다가 고학년이 될수록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B, C 교과서는 차이의 폭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대되지만, A 교과서는 2학년에서 1학년 때보다 이해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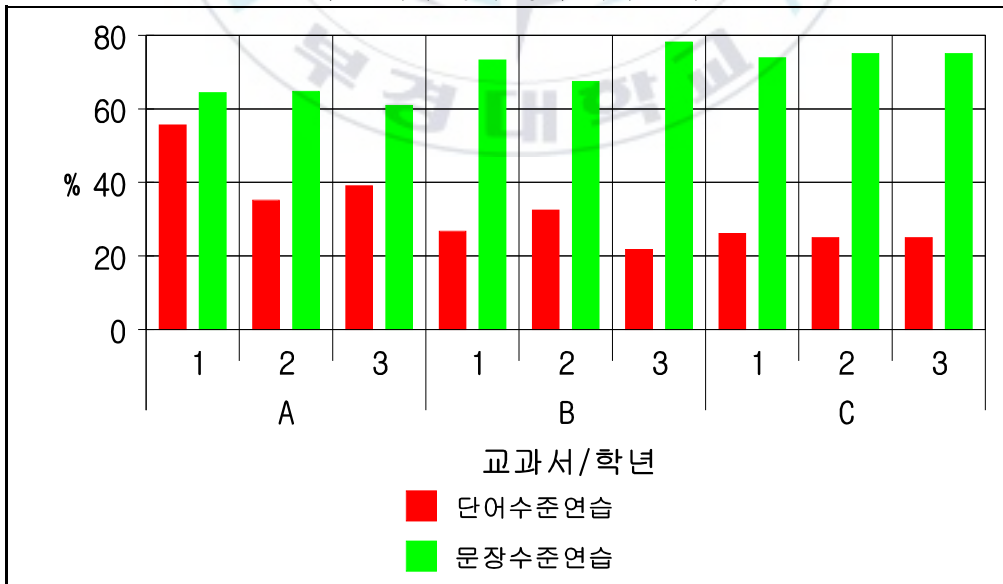
취가 낮아지고 지각청취가 높아져서 폭이 매우 적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보다 하위분류인 지각청취 내에서의 듣기 과업 자료의 분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지각 청취는 크게 단어 수준 연습과 문장 수준 연습 두 가지로 분류되며, 그 분석 결과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14) 지각 청취 영역내의 분석

교과서	학년	단어수준연습	문장수준연습	총
A	1	55.6	64.4	100
	2	35.2	64.8	100
	3	39.1	60.9	100
B	1	26.7	73.3	100
	2	32.5	67.5	100
	3	21.8	78.2	100
C	1	26.1	73.9	100
	2	25	75	100
	3	25	75	100

(그림3) 지각 청취 영역 내의 분석도



위의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모든 교과서와 학년을 통틀어, 문장 수준의 연습이 단어 수준의 연습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듣기 능력을 기르는 데는, 단어 수준 보다는 문장 수준의 연습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단어 내에서 음의 결합을 연습하는 단어 수준 연습 능력이 길러진 후, 문장 내에서 연음이나 단어 경계를 식별하는 등의 문장 수준의 연습이 가능함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어수준의 연습은 감소하고, 문장 수준의 연습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 B, C 교과서 모두 학년과는 상관없는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A 교과서는 이해청취는 1,2학년이 비슷했고 3학년에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고, 지각 청취는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증가하였다. B 교과서는 이해청취가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감소했으며 반대로 지각 청취는 증가하였다. C 교과서는 학년에 관계없이 지각 청취 이해청취 모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듣기 과업을 해당 유형의 수준에 따라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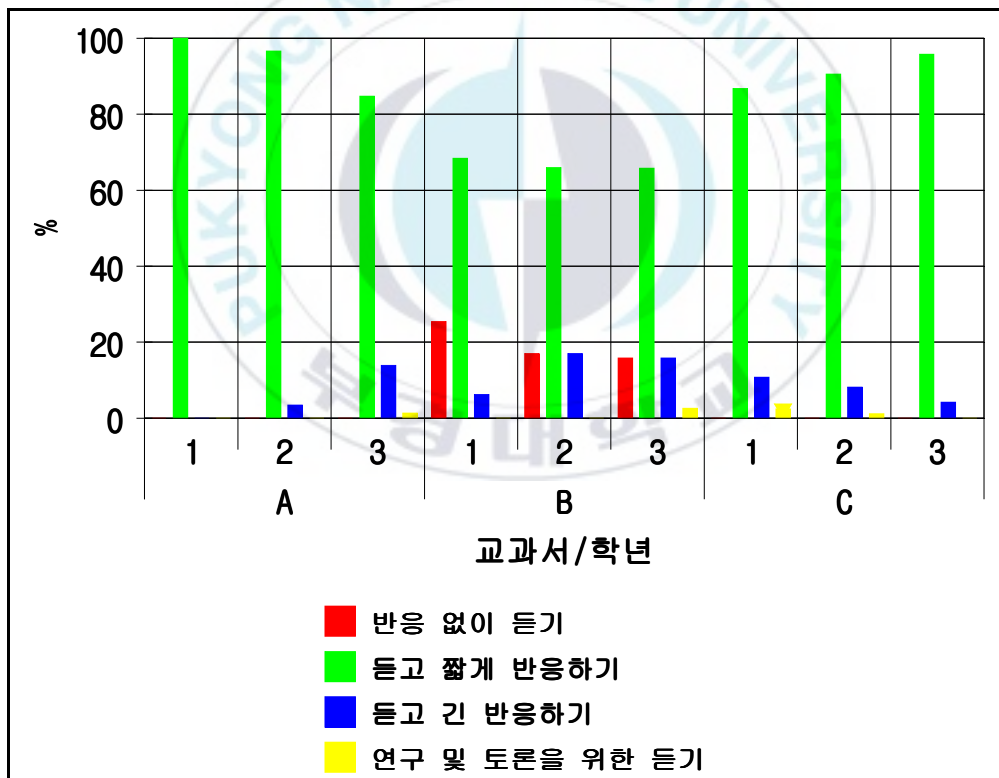
단어 수준 연습과 문장 수준 연습의 각각의 단계는 구어 과업과 읽기 쓰기 과업으로 나뉜다. (부록 4, 5, 6)을 보면, 단어 수준 연습과 문장 수준 연습 모두 교과서와 학년에 관계없이 구어 과업이 읽기 쓰기 과업 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지각 청취 영역은 말하기 연습이 읽고 쓰는 연습의 형태인 듣기 과업이 보다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해청취 영역 내의 4가지 듣기 유형을 살펴보자.

(표15) 이해 청취내의 듣기 과업 유형 분석표

교과서	학년	반응 없이 듣기	듣고 짧게 반응하기	듣고 긴 반응하기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	총
A	1	0	100	0	0	100
	2	0	96.6	3.4	0	100
	3	0	84.8	13.9	1.3	100
B	1	25.4	68.4	6.2	0	100
	2	17	66	17	0	100
	3	15.8	65.8	15.8	2.6	100
C	1	0	86.8	10.8	2.4	100
	2	0	90.6	8.2	1.2	100
	3	0	95.8	4.2	0	100

(그림4) 이해 청취내의 듣기 과업 유형 분석도



위의 표를 통해, 이해 청취의 4가지 유형 중, 이해의 유무만을 나타내는 대답을 하는 듣고 짧게 반응하기가 전 교과서 전 학년에 걸쳐서 절대적으

로 높게 나타나있음 알 수 있다. 그 외의 듣기 유형은 비중이 적으며, 특히 Ur(1984)가 학습 청취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며, 높은 유창성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평가한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는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듣기 과업의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수동적이고 낮은 단계인 반응 없이 듣기와 듣고 짧게 반응하기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감소해야하고, 높은 단계인 듣고 긴 반응하기와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해야한다. A, B 교과는 이에 대해서 비교적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편이나, C 교과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듣고 짧게 반응하기의 비중이 늘어나고, 듣고 긴 반응하기의 비중은 적어져서, C 교과는 학년별 단계적인 듣기 학습 수준 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해 청취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과업은 듣고 짧게 반응하기의 '항목에 표시하기'와 '배치도, 도표, 가계도, 그래프, 지도에 표시하거나 변경하기'로 이 두 개의 항목이 전체 듣기 유형 중 교과별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지하여, 듣기 과업이 다양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결과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A, B, C 교과서는 듣기 과업의 성취기준별 분포가 7단계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8, 9단계 성취 기준도 골고루 반영할 필요가 있다. 듣기 유형은 이해청취 내의 듣고 짧게 반응하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듣고 긴 반응하기와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의 유형도 포함시켜야 하며, 학년별로 듣기 유형의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듣기 과업의 종류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욕구를 높여주어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논문은 현재 일선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학교 3종 교과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1, 2, 3학년 과정에 제시된 듣기 과업을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Ur의 과업중심 듣기 유형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성취 기준의 분석을 살펴보면,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7단계의 성취기준의 반영 비율이 전 학년 전 교과를 통틀어 월등히 높으며, 8, 9단계 성취단계는 그 비율이 적고, 특히 9단계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이 7 단계의 성취 기준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2, 3학년 교과가 각각의 과정에 해당하는 8, 9단계 보다 7단계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단계별 듣기 수준의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듣기 과업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집중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듣기 과업이 필요한 학습자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취기준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모든 학년 모든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이 7a '(5)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표나 그림을 완성한다.' 와 7b의 '(3)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에 적게는 약 20%에서 많게는 약 60%까지 집중되어 있다. 또한, 거의 모든 학년과 교과서에서 전체 성취기준 항목들 중 누락된 항목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9 단계는 몇몇 항목을 빼고는 해당하는 듣기 과업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각 교과서의 듣기 과업이 전 학년에 걸쳐 7 단계의 몇몇 성취기준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과업을 제공하려는 성취기준 본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Ur(1984)의 과업 중심 듣기 유형에 따른 교과서 과업의 듣기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상위 분류인 지각 청취와 이해청취 중에서, 전 교과서, 전 학년을 통틀어 이해청취가 지각청취 보다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상위 단계이며, 실제 의사소통 과업에 도움이 되는 이해 청취가, 발음과 강세 등을 반복적으로 익히는 지각 청취보다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7차 교육 과정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지각 청취 내의 하위분류인 단어 수준 연습과 문장 수준 연습에서는 전 교과서와 전 학년에서, 문장 수준의 연습이 단어 수준의 연습보다 많았다. 실제 대화는 단어 보다 문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단어 수준 보다는 문장 수준의 연습이 많은 것이 실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단어 수준 연습과 문장 수준 연습, 각각의 하위분류인 구어 과업과 읽기 쓰기 과업 중에서는, 모든 교과서와 학년에 관계없이 구어 과업이 읽기 쓰기 과업 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발화 연습이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과업이 이해 청취 내의 4가지 유형 중, 이해의 유무만을 나타내는 대답을 하는 짧게 반응하기의 한 가지 유형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습 청취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며, 높은 유

창성을 요구하는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는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듣기 과업의 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수동적이고 낮은 단계인 반응 없이 듣기와 듣고 짧게 반응하기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감소해야하고, 높은 단계인 듣고 긴 반응하기와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해야한다. A, B 교과는 이에 대해서 비교적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편이나, C 교과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듣고 짧게 반응하기의 비중이 늘어나고, 듣고 긴 반응하기의 비중은 적어져서, C 교과는 학년별 단계적인 듣기 학습 수준 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Ur의 분류 내의 과업항목의 구성을 살펴보면, 듣고 짧게 반응하기의 ‘항목에 표시하기’와 ‘배치도, 도표, 가계도, 그래프, 지도에 표시하거나 변경하기’ 이 두 개의 항목의 비율이 교과별로 전체의 30%에서 50%까지 차지하여, 듣기 과업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5.2. 제언

본 연구 결과, 중학교 영어 교과서 듣기 과업에 있어서 개선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듣기 과업의 난이도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조절해야한다. 듣기 과업의 난이도의 조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낮은 학년에는 낮은 단계의 과업이 높은 단계는 높은 단계의 과업이 많아지도록 체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다 다양한 과업이 제시되어 학습자의 흥미를 높여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교과서의 듣기 과업이 몇몇 유형에만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과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상호 작용

적인 듣기 유형이 많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과업은 다소 수동적이고, 개인적인 과업이 대부분이다.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소그룹 단위의 학습을 강조하듯이, Ur(1984)의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와 같은 소그룹단위의 보다 적극적인 듣기 과업을 늘려야 한다.

넷째,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을 듣기 수업에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지침이라 할 수 있기에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얼마나 반영하는가는 곧,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세한 단계별 학습 내용을 나타내는 교육과정 상의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과서가 채택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교육부. (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I)*. 서울: 교육부.
- 교육부. (199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외국어(영어), 재량 활동,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서울: 교육부.
- 구제권. (2004).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영숙 외. (1999). *영어과 교육론: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김용희. (2004).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의 듣기 과업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김지연. (2005). *중 3 영어 교과서 듣기 자료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태완. (2001). *중학교 영어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김향남. (2002). *중학교 영어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상호작용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문정하. (2006). *중학교 영어 교과서 쓰기 활동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박순경 외. (1997). *교육 내용의 구성 및 제시 방식*. 서울: 한국교육 개발원.
- 배두분. (1999). *영어 교재론 개관*. 서울: 한국 문화사.
- 손상수. (2002). *중학교 교과서 듣기 과업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병민 외 4인. (2003).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서울: (주)천재교육
- 이성호 외 5인. (2002).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서울: (주)지학사.
- 인선미. (2003).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 3 영어 교과서의 듣기 자료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장영희 외 4인. (2003).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서울: (주)두산.
- 정주연. (2003).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분석: 듣기 부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최지영. (2006).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과업중심 듣기 자료 분석*.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허영미. (2003). *영어 교과서의 과업 중심의 듣기 자료 분석; 중학교 3학년 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Anderson, A., & Lynch, T. (1988). *Listening*. Oxford University Press.
- Asher, J. (1969). The 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 to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0(2), 3-17.
- Asher, J. (1977). *Learning another language through actions: The complete teacher's guide book*. Los Gatos, CA: Sky Oaks Productions.
- Asher, J., Kusudo, J., & Torre, R. (1974).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commands. *Modern Language Journal*, 58(1), 24-32.
- Berko, R. M., & Wolvin, A. D. (1989). *Communicating* (4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 Breen, M. (1987). *Learner contributions to task design*. In C. Candlin & D. Murphy (Eds.). *Language learning tasks* (pp. 23-46). New York: Prentice-Hall.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 Brown, G. (1977). *Listening to spoken English*. London: Longman.
- Johnson, K. (1979). Communicative approaches and communicative processes. In C. J. Brumfit & K. Johnson. (Eds.).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pp. 192-20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hen, S. (1982).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 Krashen, S.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 Longman
- Krashen, S. D., & Terrell, T. D.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Hayward, CA: Alemany

- Press.
- Legutke, M., & Thomas, H. (1991). *Process and experience in the language classroom*. New York: Longman.
- Littlejohn, A. (1998). The analysis of language teaching materials: Inside the Trojan Horse. In B. Tomlinson (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pp. 190–2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ng, M. (1985). A role of instruc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K. Hyldenstam and M. Dienemann (Eds.), *Modeling and assess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77–99).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Morley, J. (1991). Listening comprehension in second/foreign language instruction.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85–105). Boston: Heinle & Heinle.
- Nord, J. (1981). Three steps leading to listening fluency: A beginning. In H. Winitz (Ed.), *The comprehension approach to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pp. 69–100). New York: Newbury House.
- Nunan, D. (1985). *Language teaching course design: Trends and issues*. Adelaide: National Curriculum Resource Centre.
- Nunan, D. (1989).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iv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nan, D. (1991a). Communicative tasks and the language curriculum. *TESOL Quarterly*, 25(2), 279–295.
- Nunan, D. (1991b).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A textbook for teachers*. New York: Prentice Hall.
- Nunan, D. (1999). *Second language teaching & learning*. Hong Kong: University of Hong Kong.
- Peterson, P. W. (1991). A synthesis of methods for interactive listening.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106–122). Boston: Heinle & Heinle.
- Postovsky, V. (1974). Effects of delay in oral practice at the beginning

- of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8(3), 229-239.
- Richards, J. C. (1983). Listening comprehension: Approach, design, procedure. *TESOL Quarterly*, 17, 129-39.
- Richards, J. C. (1985). *The contexts of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 (1987). Listening comprehension: Approach, design, procedure In M. Long & J. C. Richards (Eds.), *Methodology in TESOL: A book of readings* (pp.161-176). New York: Newbury House.
- Richards, J. C. (1990). *The Language Teaching Matri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 & Rogers, T. S. (1986).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vers, W. M. (1966). Listening comprehension. *Modern Language Journal*, 50(4), 196-204.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st, M. (1994). *Introducing listening*. London: Prentice Hall.
- Skehan, P. (1998a). *A cognitive approach to language lear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kehan, P. (1998b). Task-based instructio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8, 268-286.
- Ur, P. (1984).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derwood, M. (1989). *Teaching listening*. London: Longman.
- Widdowson, H. G.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s, J. (1996). *A framework for task-based learning*. London: Longman.

(부록1) Ur(1984)의 기준에 따른 교과서의 과업 분류

지 각 청 취	단 어 수 준 연 습	구 어 과 업	반복하기	반복해서 따라하기
			모국어와 영 어의 소리를 식 별하기	
		일치하는 단어 구별하기	유사한 발음 구분하여 발음하기, 다른 발음이 적 힌 공을 다른 주머니로 옮기기, 단어를 발음별로 분류하여 저울에 달아 무거운 것 판별, 같은 발음을 가진 단어의 점을 이어 그림 완성하기	
		읽기 쓰 기 과업	옳은 단어 찾기 일치하는 단어 쓰기	can과 can't 중 맞는 것 쓰기
	문 장 수 준 연 습	구 어 과 업	반복하기	반복해서 문장 따라하기
			어군 식별하기	연음현상
		읽 기, 쓰 기 과 업	강세, 비강세 식별하기	강세 표시하기, 유의하여 대화하기, 같은 강세의 단 어를 찾아 미로 찾기.
			억양 식별하기 받아쓰기	억양 표시하기, 억양으로 화자의 의도 파악하기 듣고 따라쓰기
	이 해 청 취	반 응 없 이 듣 기	대답 없이 듣기만 하기	
			들으면서 교재 따라 읽 기	
익숙한 교재 내용 듣기				
시각 자료를 보며 듣기				
교사의 비격식적인 말 듣기				
오락을 위한 듣기				
듣 고 짧 게 반 응 하 기		지시에 따르기(신체반 응, 모형 쌓기, 그림 그 리기 등)	듣고 동작으로 표현, 듣고 '누구일까 놀이'하기, can 이 들어가는 문장 동작으로 표현하기, 들리는 순 서대로 종이 접기,	
		항목에 표시하기(체크, 동그라미표 등)	화자간의 관계 고르기, 해당 문장 고르기, 문장의 배열 순서대로 번호쓰기, 연관된 문장, 단어 연결 하기,	
		참, 거짓 연습	T/F에 체크하기,	
		잘못된 것 찾기		
빈 칸 채우기	빈칸에 맞는 말 적기, 틀린 것 고치기, 노래 듣고			

		빈 가사 채우기, 둘 중에 맞는 것 고르기,
	정의를 추측하기	특징을 듣고 어떤 스포츠인지 추측하기, 수수께끼 듣고 맞추기,
	특정 정보 노트하기	화자의 일정을 간단한 문장으로 적기, 들리는 단어 적기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 표시하기	맞는 그림 고르기, 연관된 그림 연결하기, 인물의 표정을 그려넣기, 그림의 내용 중 틀린 것 고치기, 그림에서 화자 찾기 그림에 순서대로 번호넣기, 알맞는 표지판 그림 고르기,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말하기
	배치도, 도표, 가계도, 그래프, 지도에 표시하거나 변경	지도의 알맞은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의 번호넣기, 막대그래프 그리기, 쇼핑 리스트에 표시하기, 건물 배치도에서 위치 고르기, 일정표 채우기, 달력, 메뉴판의 정보 완성하기, 그래프에 발 크기 그리기
듣고 긴 반응하기	따라하기와 받아쓰기	노래듣고 각자 연습한 후 나와서 부르기, 대화 듣고 자신의 정보로 바꾸어 말하기, 듣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 쓰기. 들은 정보를 이용해 문장으로 적고 전달하기
	바꾸어 말하기와 쓰기	이야기 듣고 주인공을 나로 바꾸어 써보기, 빈 악보에 새로운 가사 붙여 노래하기, 친구에게 위치 설명하기, 자신의 말로 바꾸어 역할극 하기, 자신이 그린 그림 설명하기, 시를 듣고 한 행을 추가해서 쓴 후 발표하기
	질문에 응답하기	대화발생 장소 말하기, 화자간 관계 말하기, 어떤 상황인지 말하기
	이해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	행동의 이유, 시를 듣고 주제에 관한 질문 답하기, 화자의 생각과 느낌 적기, 듣고 계산해서 답하기
	예상하기	이어질 응답으로 알맞은 것 고르기, 영화의 일부분을 보고 빈칸에 인물들 간의 대화 예상하여 쓰고 실제대화와 맞는 지 듣고 비교하기, 결말 완성하여 말하기
	공란 채우기	대화를 듣고 빈칸에 이야기 쓰기, 대화를 듣고 빈 칸에 자신의 희망과 계획쓰기
	요약하기	내용 요약해서 쓰고 발표하기

연구 및 토론 을 위 한 듣기	문제 해결하기	고민을 듣고 해결방법 쓰기
	Jigsaw 청취	
	해석적 청취	듣고 찬반 의견을 쓰고 친구와 토론하기, 듣기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친구와 이야기하기, 화자의 생각과 그에 대한 근거를 말하기, 시 읽고 느낌 말하기
	평가적 분석과 문제 분석	

(부록2) A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표

단 과 계 정	성취기준	1학년		2학년		3학년		총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7a	(1)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를 이해한다.	2	2.7%	0	0%	0	0%	2	0.8%
	(2)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주제를 이해한다.	6	8.1%	1	1.3%	1	1.2%	8	3.4%
	(3) 간단한 대화를 듣고 상황 및 화자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2	2.7%	2	2.5%	2	2.4%	6	2.5%
	(4)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연결시킨다.	1	1.4%	0	0%	0	0%	1	0.4%
	(5)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표나 그림을 완성한다.	31	41.9%	24	30.3%	18	21.1%	73	30.7%
	(1)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6	8.1%	11	14.0%	5	5.9%	22	9.2%
심 화	(2) 간단한 말을 듣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알고, 근거를 이해한다.	3	4.0%	0	0%	0	0%	3	1.3%
	소계	51	68.9%	38	48.1%	26	30.6%	115	48.3%
7b	(1) 어조와 억양으로 화자의 느낌이나 정서를 파악한다.	1	1.4%	2	2.5%	0	0%	3	1.3%
	(2)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이해한다.	1	1.4%	4	5.1%	2	2.4%	7	2.9%
	(3)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18	24.1%	17	21.5%	21	24.7%	56	23.5%

	과업을 수행한다.							
	(4) 쉬운 내용의 사실적 정보와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0	0%	0	0%	0	0%	0
심 화	(1)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0	0%	0	0%	0	0%	0
	(2) 짧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1	1.4%	0	0%	4	4.7%	5
소계		21	28.3%	23	29.1%	27	31.8%	71
8a	(1)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파악한다.	0	0%	2	2.4%	1	1.2%	3
	(2)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	1	1.4%	0	0%	3	3.5%	4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0	0%	4	5.1%	6	7.1%	10
	(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	0	0%	1	1.3%	3	3.5%	4
	(1)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기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해한다.	0	0%	4	5.1%	3	3.5%	7
심 화	(2)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의 근거를 찾는다.	0	0%	0	0%	0	0%	0
	소계	1	1.4%	11	13.9%	16	18.8%	28
8b	(1)일상 생활에 관한 대화의 일부를 듣고, 문맥을 통하여 상황을 추측한다.	0	0%	3	3.7%	1	1.2%	4
	(2) 서로 다른 입장의 말을 듣고 비교 대조한다.	0	0%	0	0%	0	0%	0
	(3)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0	0%	1	1.3%	0	0%	1
	(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0	0%	1	1.3%	11	12.9%	12

	다.									
	(5)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 사항을 이해한다.	0	0%	0	0%	2	2.3%	2	0.8%	
화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 및 목적심을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분위기를 파악한다.	0	0%	0	0%	0	0%	0	0%	
	소계	0	0%	5	6.3%	14	16.4%	19	8%	
9a	기본	(1)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심화	(4) 비교적 긴 지시나 설명을 듣고, 절차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	0	0%	1	1.3%	0	0%	1	0.4%
		(1)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그 결말을 추론한다.	0	0%	0	0%	1	1.2%	1	0.4%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화자들의 느낌이나 정서, 감정 등을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소계	0	0%	1	1.3%	1	1.2%	2	0.8%	
9b	기본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0	0%	0	0%	0	0%	0	0%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그 근거를 찾는다.	0	0%	0	0%	0	0%	0	0%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과 분위기를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0	0%	0	0%	0	0%	0	0%

	고, 등장인물의 느낌, 정서, 견해 등을 이해한다.								
심화	(1) 관심 있는 노래나 시를 듣고 감상한다.	1	1.4%	1	1.3%	1	1.2%	3	1.3%
	(2)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대화의 일부를 듣고, 문맥을 통하여 상황을 추측한다.	0	0%	0	0%	0	0%	0	0%
소계		1	1.4%	1	1.3%	1	1.2%	3	1.3%
합계		74	100%	79	100%	85	100%	238	100%

(부록3) B교과서 성취기준 분석

단 과 계	성취기준	1학년		2학년		3학년		총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7a	(1)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를 이해한다.	1	0.5%	4	2.0%	0	0%	5	0.8%
	(2)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주제를 이해한다.	7	3.7%	3	1.5%	8	4%	18	3.0%
	(3) 간단한 대화를 듣고 상황 및 화자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3	1.6%	2	0.9%	2	1%	7	1.2%
	(4)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연결시킨다.	24	12.6%	24	11.8%	23	11.7%	71	12%
	(5)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표나 그림을 완성한다.	70	36.8%	45	22.1%	20	10.1%	135	22.9%
	(1)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37	19.5%	27	13.2%	21	10.6%	85	14.4%
심화	(2) 간단한 말을 듣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알고, 근거를 이해한다.	10	5.3%	8	3.9%	3	1.5%	21	3.5%
	소계	152	80%	113	55.4%	77	38.9%	342	57.8%
7b	(1) 어조와 억양으로 화자의 느낌이나 정서를 파악한다.	4	2.1%	2	1%	0	0%	6	1.0%
	(2)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	10	5.3%	9	4.4%	6	3.0%	25	4.2%

		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이해한다.								
		(3)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20	10.4%	23	11.2%	17	8.6%	60	10.1%
		(4) 쉬운 내용의 사실적 정보와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0	0%	1	0.5%	0	0%	1	0.2%
심 화		(1)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2	1.1%	1	0.5%	0	0%	3	0.5%
		(2) 짧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소계			36	18.9%	36	17.6%	23	11.6%	95	16%
8a	기 본	(1)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파악한다.	0	0%	8	4.2%	3	1.5%	11	1.9%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	0	0%	9	4.4%	18	9.1%	27	4.5%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0	0%	12	5.7%	12	6.1%	24	4.1%
		(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	0	0%	7	3.4%	8	4.0%	15	2.5%
	심 화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기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의 근거를 찾는다.		0	0%	6	2.9%	1	0.5%	7	1.2%	
소계			0	0%	42	20.6%	42	21.2%	84	14.2%
8b	기 본	(1) 일상 생활에 관한 대화의 일부를 듣고, 문맥을 통하여 상황을 추측한다.	0	0%	1	0.5%	0	0%	1	0.2%
		(2) 서로 다른 입장의 말을	0	0%	0	0%	0	0%	0	0%

		듣고 비교 대조한다.								
		(3)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0	0%	2	1%	1	0.5%	3	0.5%
		(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0	0%	0	0%	19	9.6%	19	3.2%
		(5)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이해한다.	0	0%	8	3.9%	12	6.1%	20	3.4%
	심화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 및 목적을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분위기를 파악한다.	0	0%	0	0%	0	0%	0	0%
		소계	0	0%	11	5.4%	32	16.2%	43	7.3%
9a	기본	(1)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이해한다.	0	0%	0	0%	2	1.0%	2	0.3%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	0	0%	0	0%	5	2.5%	5	0.8%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0	0%	0	0%	2	1.0%	2	0.3%
		(4) 비교적 긴 지시나 설명을 듣고, 절차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	0	0%	0	0%	1	0.5%	1	0.2%
심화	(1)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그 결말을 추론한다.	0	0%	0	0%	6	3.1%	6	1.1%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화자들의 느낌이나 정서, 감정 등을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16	8.1%	16	2.7%
9b	기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	0	0%	0	0%	2	1.0%	2	0.3%

	을 듣고, 대의 및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본	(2)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그 근거를 찾는다.	0	0%	0	0%	3	15%	3	0.5%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과 분위기를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4)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등장인물의 느낌, 정서, 견해 등을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1) 관심 있는 노래나 시를 듣고 감상한다.	2	1.1%	2	1%	1	0.5%	5	0.9%
심화	(2)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대화의 일부를 듣고, 문맥을 통하여 상황을 추측한다.	0	0%	0	0%	2	1.0%	2	0.3%
	소계	2	1.1%	2	1%	8	4%	12	2%
합계		190	100%	204	100%	198	100%	592	100%

(부록4) C 교과서 성취기준 분석

단 계	과 정	성취기준	1학년		2학년		3학년		총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7a	기 본	(1)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를 이해한다.	2	2.1%	1	1.0%	2	2.1%	5	1.7%
		(2)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주제를 이해한다.	6	6.3%	11	10.7%	7	7.4%	24	8.2%
		(3) 간단한 대화를 듣고 상황 및 화자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10	10.5%	8	7.8%	9	9.6%	27	9.2%
		(4)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연결시킨다.	1	1.1%	0	0%	0	0%	1	0.3%
		(5)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표나 그림을 완성한다.	29	30.5%	13	12.6%	7	7.4%	49	17%

	심 화	(1)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8	8.4%	10	9.7%	11	11.8%	29	9.9%
		(2) 간단한 말을 듣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알고, 근거를 이해한다.	2	2.1%	4	3.9%	1	1.1%	7	2.4%
소계			58	61%	47	45.7%	37	39.4%	142	48.7%
7b	기 본	(1) 어조와 억양으로 화자의 느낌이나 정서를 파악한다.	2	2.1%	3	2.9%	0	0%	5	1.7%
		(2) 일상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이해한다.	7	7.4%	13	12.6%	6	6.4%	26	8.9%
		(3) 일상 생활에 관한 말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16	16.8%	20	19.4%	10	10.6%	46	15.7%
		(4) 쉬운 내용의 사실적 정보와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심 화	(1)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2) 짧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1	1.1%	1	1%	2	2.1%	4	1.4%	
소계			26	27.4%	37	35.9%	18	19.1%	81	27.7%
8a	기 본	(1)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파악한다.	1	1.1%	1	1%	6	6.4%	8	2.7%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	2	1.9%	2	1.9%	6	6.4%	10	3.4%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1	1.1%	4	3.9%	6	6.4%	11	3.8%
		(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	0	0%	2	1.9%	0	0%	2	0.7%
	심 화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기 전략을	1	1.1%	0	0%	0	0%	1	0.3%

		적절히 사용하여 이해한다.								
		(2)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의 근거를 찾는다.	1	1.1%	0	0%	1	1.0%	2	0.7%
		소계	6	6.3%	9	8.7%	19	20.2%	34	11.6%
8b	기본	(1)일상 생활에 관한 대화의 일부를 듣고, 문맥을 통하여 상황을 추측한다.	2	2.1%	0	0%	1	1.1%	3	1.0%
		(2) 서로 다른 입장의 말을 듣고 비교 대조한다.	0	0%	1	1%	0	0%	1	0.3%
		(3)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0	0%	0	0%	1	1.1%	1	0.3%
		(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1	1.1%	0	0%	6	6.4%	7	2.4%
		(5)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이해한다.	0	0%	2	1.9%	7	7.3%	9	3.2%
		(1)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상황 및 심 목적을 이해한다.	0	0%	0	0%	1	1.1%	1	0.3%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말을 듣고, 분위기를 파악한다.	0	0%	0	0%	0	0%	0	0%
		소계	3	3.2%	3	2.9%	16	17%	22	7.5%
9a	기본	(1)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대화를 듣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	0	0%	0	0%	1	1.1%	1	0.3%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다.	0	0%	0	0%	1	1.1%	1	0.3%
		(4) 비교적 긴 지시나 설명을	0	0%	0	0%	0	0%	0	0%

		듣고, 절차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								
심화		(1)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그 결말을 추론한다.	0	0%	3	2.9%	2	2.1%	5	1.8%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화자들의 느낌이나 정서, 감정 등을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소계			0	0%	3	2.9%	4	4.3%	7	2.4%
9b	기본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대의 및 세부 사항을 파악한다.	0	0%	0	0%	0	0%	0	0%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그 근거를 찾는다.	0	0%	0	0%	0	0%	0	0%
		(3)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상황과 분위기를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등장인물의 느낌, 정서, 견해 등을 이해한다.	0	0%	0	0%	0	0%	0	0%
	심화	(1) 관심 있는 노래나 시를 듣고 감상한다.	2	2.1%	4	3.9%	0	0%	6	2.1%
(2)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대화의 일부를 듣고, 문맥을 통하여 상황을 추측한다.		0	0%	0	0%	0	0%	0	0%	
소계			2	2.1%	4	3.9%	0	0%	6	2.1%
합계			95	100%	103	100%	94	100%	292	100%

(부록5) A 교과서 과업 유형 분석

A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		총	
				항목	비율	항목	비율	항목	비율	항목	비율
지 각 청	단어 수 구 어 활	수 어 활	반복하기	7	6.7%	9	8%	9	7.2%	25	7.3%
			모국어와 영어의 소리를 식별하기	0	0%	0	0%	0	0%	0	0%

취	문 장 수 준 연 습	동	일치하는 단어 구 별하기	7	6.7%	10	8.8%	9	7.2%	26	7.6%	
		읽 기	옳은 단어 찾기	0	0%	0	0%	0	0%	0	0%	
		쓰 기	일치하는 단어 쓰 기	1	1.0%	0	0%	0	0%	1	0.3%	
	문 장 수 준 연 습	구 어 활 동	반복하기	10	9.6%	11	9.7%	16	12.8%	37	10.7%	
			어군 식별하기	11	10.6%	13	11.5%	7	5.6%	31	9.1%	
		읽 기	강세, 비강세 식 별하기	3	2.9%	3	2.7%	0	0%	6	1.8%	
			억양 식별하기	3	2.9%	8	7.1%	5	4%	16	4.7%	
	활 동	받아쓰기	0	0%	0	0%	0	0%	0	0%		
	소 계				42	40.4%	54	47.8%	46	36.8%	142	41.5%
	이 해 청 취	반 응 이 듣 기	대답 없이 듣기만 하 기	0	0%	0	0%	0	0%	0	0%	
들으면서 교재 따라 읽기			0	0%	0	0%	0	0%	0	0%		
익숙한 교재 내용 듣 기			0	0%	0	0%	0	0%	0	0%		
시각 자료를 보며 듣 기			0	0%	0	0%	0	0%	0	0%		
교사의 비격식적인 말 듣기			0	0%	0	0%	0	0%	0	0%		
오락을 위한 듣기			0	0%	0	0%	0	0%	0	0%		
듣 고 짧 게 반 응 하 기			지시에 따르기(신체반 응, 모형쌓기, 그림 그 리기 등)	2	1.9%	1	0.9%	0	0%	3	0.9%	
		항목에 표시하기(체 크, 동그라미표 등)	22	21.2%	22	19.4%	24	19.2%	68	19.9%		

	참, 거짓 연습	6	5.8%	12	10.6%	13	10.4%	31	9.1%
	잘못된 것 찾기	0	0%	0	0%	0	0%	0	0%
	빈 칸 채우기	7	6.7%	1	0.9%	4	3.2%	12	3.5%
	정의를 추측하기	0	0%	0	0%	0	0%	0	0%
	특정 정보 노트하기	0	0%	0	0%	2	1.6%	2	0.6%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 표시하기	25	24%	19	16.8%	22	17.6%	66	19.1%
	배치도, 도표, 가계도, 그래프, 지도에 표시 하거나 변경	0	0%	2	1.8%	2	1.6%	4	1.2%
듣고 긴 반응하기	따라하기와 받아쓰기	0	0%	0	0%	2	1.6%	2	0.6%
	바꾸어 말하기와 쓰 기	0	0%	0	0%	2	1.6%	2	0.6%
	질문에 응답하기	0	0%	0	0%	1	0.8%	1	0.3%
	이해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	0	0%	0	0%	1	0.8%	1	0.3%
	예상하기	0	0%	2	1.8%	3	2.4%	5	1.5%
	공란 채우기	0	0%	0	0%	1	0.8%	1	0.3%
	요약하기	0	0%	0	0%	1	0.8%	1	0.3%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	문제 해결하기	0	0%	0	0%	1	0.8%	1	0.3%
	Jigsaw 청취	0	0%	0	0%	0	0%	0	0%
	해석적 청취	0	0%	0	0%	0	0%	0	0%
	평가적 분석과 문체 분석	0	0%	0	0%	0	0%	0	0%
	소계	62	59.6%	59	52.2%	79	63.2%	200	58.5%
	합계	104	100%	113	100%	125	100%	342	100%

(부록6) B 교과서 과업 유형 분석

B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		총		
			항목	비율	항목	비율	항목	비율	항목	비율	
지 각 청 취	단 어 수 준 연 습	구 어 활 동	반복하기	12	5.5%	13	6.1%	5	2.2%	30	4.5%
		읽	모국어와 영어의 소리를 식별하기	0	0%	0	0%	0	0%	0	0%
			일치하는 단어 구 별하기	12	5.5%	12	5.7%	12	5.2%	36	5.4%
			옳은 단어 찾기	0	0%	0	0%	0	0%	0	0%

	기 쓰 기 활 동	일치하는 단어 쓰기	0	0%	0	0%	0	0%	0	0%
문 장 수 준 연 습	구 어 활 동	반복하기	21	9.4%	28	13.2%	32	13.9%	81	12.2%
		어군 식별하기	14	6.4%	4	1.9%	4	1.7%	22	3.3%
	읽 기 쓰 기 활 동	강세, 비강세 식별하기	5	2.3%	4	1.9%	4	1.7%	13	2%
		억양 식별하기	6	2.7%	3	1.4%	2	0.9%	11	1.7%
			받아쓰기	20	9.1%	13	6.1%	19	8.3%	52
소계			90	40.9%	77	36.3%	78	33.9%	245	37%
이 해 청 취	반 응 없 이 듣 기	대답 없이 듣기만 하기	27	12.3%	22	10.4%	24	10.4%	73	11%
		들으면서 교재 따라 읽기	6	2.7%	1	0.5%	0	0%	7	1.1%
		익숙한 교재 내용 듣기	0	0%	0	0%	0	0%	0	0%
		시각 자료를 보며 듣기	0	0%	0	0%	0	0%	0	0%
		교사의 비격식적인 말 듣기	0	0%	0	0%	0	0%	0	0%
		오락을 위한 듣기	0	0%	0	0%	0	0%	0	0%
	듣 고 짧 게 반 응 하 기	지시에 따르기(신체반응, 모형쌓기, 그림 그리기 등)	1	0.5%	0	0%	0	0%	1	0.2%
		항목에 표시하기(체크, 동그라미표 등)	24	10.9%	27	12.7%	41	17.8%	92	13.9%
		참, 거짓 연습	0	0%	0	0%	0	0%	0	0%
		잘못된 것 찾기	0	0%	0	0%	0	0%	0	0%
		빈 칸 채우기	0	0%	10	4.7%	17	7.4%	27	4.1%
		정의를 추측하기	0	0%	0	0%	0	0%	0	0%

	특정 정보 노트하기	0	0%	0	0%	0	0%	0	0%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열/변경/ 표시하기	52	23.4%	45	21.3%	40	17.4%	137	20.4%
	배치도, 도표, 가계도, 그래프, 지도에 표시하거나 변경	12	5.5%	7	3.3%	2	0.9%	21	3.2%
듣 고 반 응 하 기	따라하기와 받아쓰기	1	0.5%	0	0%	3	1.3%	4	0.6%
	바꾸어 말하기와 쓰기	5	2.3%	2	0.9%	0	0%	7	1.1%
	질문에 응답하기	1	0.5%	17	8%	17	7.4%	35	5.3%
	이해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	0	0%	0	0%	1	0.4%	1	0.2%
	예상하기	1	0.5%	2	0.9%	3	1.3%	6	0.9%
	공란 채우기	0	0%	1	0.5%	0	0%	1	0.2%
	요약하기	0	0%	1	0.5%	0	0%	1	0.2%
연 구 및 토 론 을 위 한 기	문제 해결하기	0	0%	0	0%	2	0.9%	2	0.3%
	Jigsaw 청취	0	0%	0	0%	0	0%	0	0%
	해석적 청취	0	0%	0	0%	2	0.9%	2	0.3%
	평가적 분석과 문제 분석	0	0%	0	0%	0	0%	0	0%
소계		139	59.1%	135	63.7%	152	66.1%	417	63%
합계		220	100%	212	100%	230	100%	662	100%

(부록7) C 교과서 과업 유형 분석

C교과서			1학년		2학년		3학년		총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지 각 청 취	단 어 수 준 연 습	구 어 활 동	반복하기	12	9.3%	12	9.0%	12	8.3%	36	8.9%
		읽 기 쓰 기	모국어와 영어의 소리를 식별하기	0	0%	0	0%	0	0%	0	0%
			일치하는 단어 구별하기	0	0%	0	0%	0	0%	0	0%
	옳은 단어 찾기		0	0%	0	0%	0	0%	0	0%	
			일치하는 단어 쓰기	0	0%	0	0%	0	0%	0	0%

	기 활 동									
문 장 수 준 연 습	구 어 활 동	반복하기	10	7.8%	12	9.0%	12	8.3%	34	8.4%
		어군 식별하기	11	8.5%	12	9.0%	12	8.3%	35	8.6%
	읽 기 , 쓰 기	강제, 비강제 식별 하기	12	9.3%	12	9.0%	12	8.3%	36	8.9%
		억양 식별하기	0	0%	0	0%	0	0%	0	0%
	기 활 동	받아쓰기	1	0.8%	0	0%	0	0%	1	0.2%
소계			46	35.7%	48	36%	48	33.2%	142	35%
이 해 청 취	반 응 없 이 듣 기	대답 없이 듣기만 하 기	0	0%	0	0%	0	0%	0	0%
		들으면서 교재 따라 읽기	0	0%	0	0%	0	0%	0	0%
		익숙한 교재 내용 듣 기	0	0%	0	0%	0	0%	0	0%
		시각 자료를 보며 듣 기	0	0%	0	0%	0	0%	0	0%
		교사의 비격식적인 말 듣기	0	0%	0	0%	0	0%	0	0%
		오락을 위한 듣기	0	0%	0	0%	0	0%	0	0%
	듣 고 짧 게 반 응 하 기	지시에 따르기(신체반 응, 모형쌓기, 그림 그 리기 등)	0	0%	0	0%	1	0.7%	1	0.2%
		항목에 표시하기(체크, 동그라미표 등)	17	13.2%	44	33%	53	36.8%	114	28.2%
		참, 거짓 연습	0	0%	2	1.5%	2	1.4%	4	1%
		잘못된 것 찾기	0	0%	0	0%	0	0%	0	0%
		빈 칸 채우기	11	8.5%	7	5.3%	9	6.3%	27	6.7%
		정의를 추측하기	2	1.6%	0	0%	0	0%	2	0.5%
		특정 정보 노트하기	0	0%	0	0%	1	0.7%	1	0.2%
그림을 식별하거나 배 열/변경/ 표시하기	31	23.8%	18	13.5%	21	14.6%	70	17.2%		

	배치도, 도표, 가계도, 그래프, 지도에 표시하거나 변경	11	8.5%	6	4.5%	5	3.5%	22	5.4%
듣고 긴 반응하기	따라하기와 받아쓰기	0	0%	0	0%	1	0.7%	1	0.2%
	바꾸어 말하기와 쓰기	0	0%	0	0%	0	0%	0	0%
	질문에 응답하기	5	3.9%	1	0.8%	0	0%	6	1.5%
	이해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	2	1.6%	1	0.8%	0	0%	3	0.7%
	예상하기	2	1.6%	5	3.8%	1	0.7%	8	2%
	공란 채우기	0	0%	0	0%	0	0%	0	0%
	요약하기	0	0%	0	0%	2	1.4%	2	0.5%
연구 및 토론을 위한 듣기	문제 해결하기	0	0%	0	0%	0	0%	0	0%
	Jigsaw 청취	0	0%	0	0%	0	0%	0	0%
	해석적 청취	2	1.6%	1	0.8%	0	0%	3	0.7%
	평가적 분석과 문체 분석	0	0%	0	0%	0	0%	0	0%
	소계	83	64.3%	85	64%	96	66.8%	264	65%
	합계	129	100%	133	100%	144	100%	406	100%